문재인 재신임 승부수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제3298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9일>

코스피 1934.20 (+55.52)

코스닥 660.67 (+22.45)

금리(국고채 3년) 1.68 (+0.01)

환율(원·달러) 1193.50 (−4.00)

중기청? 재벌들러리청?

지난 7월 24일 열린 '남대문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 가운데)이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등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창식 중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재용 남대문시장상인회장, 장재영 대표. /연합뉴스

골목상권 침해엔 "조정신청하라" 만만디
대기업 행사엔 일정까지 조정해 들러리
동반성장위에 재벌 하청기업 대표 추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을 위한 취지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하 중기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중소상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정화 청장은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대기업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업청장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2년 설립된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의 임원들이 대기업 1차 협력사 소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도 맡아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는 '남대문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협약식에는 한정화 중기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최창식 중구청장,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등과 함께 참석했다. 당시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보름 정도 앞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이 협약식을 두고 서울시장에 중기청장까지 나서서 신세계를 밀어주는 '쇼'라고 비난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올해 2월에 예정된 협약식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중기청이 일정을 미뤘으며 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중기청 주최 하에 이뤄진 것이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정으로 인해 정확한 사유를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의 회장과 임원 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돼 사실상 대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중견기업 위원인 인지컨트롤스 회장과 상보의 대표 역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업체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동반성장위 중견기업 위원은 중기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의 추천으로 위원 자리에 앉았다. 사실상 중견기업연합회 회원 대다수가 대기업의 1차 하청이기 때문에 동반위 위원도 대기업 1차 하청업체 소속의 위원이 올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전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싫은 소리 한번 했다가 거래가 끊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기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는가. 그저 잘하고 있다, 좋다, 이런 소리 밖에 할 수 없다"며 "현재 중기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는 사실상 대기업 산하라고 해도 될 만큼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많다. 중기청 내에서도 이들이 중견기업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의 대기업들의 지역상권·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미진하다.

식자재 유통시장에 대기업들이 앞 다퉈 뛰어들며 중소유통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중기청이 내놓은 방안은 '사업조정신청' 뿐이다. 조정신청은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침해에 대해 중기청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중기청은 영업정지 등의 규제로 대기업의 상권침해를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신청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되며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상인들은 이 기간에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다. 올해 7월까지 식자재유통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총 27건이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중 10건 내외만이 정식 조정에 들어갔다.

또한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년 반 동안의 검찰고발 건수는 전체 114건 중 8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한 소상공인은 "이미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대기업청이다. 현재 존재하는 규제들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 하소연하는 수준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모두 살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답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갑질 재벌 삼성 1등

삼성이 국내 대기업 중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삼성전자, 제일기획,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계열사가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 중 시정명령은 7건, 과징금 부과는 3건이다. 갑질의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약 144억원이다. 이는 10대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과징금이 약 27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현대자동차는 시정명령 5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총 9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롯데 7건, 두산 5건, 한화 4건 순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롯데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대홍기획, 롯데쇼핑 등 계열사 7건에 대해 약 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와 대홍기획 같은 기업은 반복해 제재를 받았다"며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Membership discount? high-handedness of large companies.

멤버십 할인? 상인만 봉

It is said that mobile network operators and franchises have been acting high-highhandedly by making small franchisees pay part of the money that is created from providing members a discount.

According to mobile network industry, the three major mobile network operators provide from thirty thousand to hundred and twenty thousand points to the new members depending on their payment amount and term of a contract.

SK telecom, for instance, provide unlimited points to the VIP members.

Mobile network operators are emphasizing the fact that such membership service is only for their members and it is a benefit that the points could be used as cash. However, that is not the real story.

The franchisees say that the partnership discount is high-handedness of large companies.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3년 3월 시내 한 편의점에서 KT 사내 모델이 편의점 미니스톱과의 멤버십 제휴를 시연하고 있다. /KT 제공

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 업체가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 일부 혹은 대부분이 가맹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통사와 가맹본부들의 영세상인에 대한 '갑질' 행사가 지속돼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는 이용 금액, 가입 기간에 연동되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연간 3만~12만 포인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VIP 등급 회원에게는 포인트 무제한 혜택을 준다. 이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이통사에서는 자사의 가입자들만 누릴 수 있으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고객 혜택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통사와 멤버십 제휴를 맺은 가맹사업자들은 제휴 할인이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사회

▲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교육대학교 교수 400여명이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법무부**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외국인은 한국행 비행기에 아예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집회감시 의혹'이 제기된 CC(폐쇄회로)TV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1·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자 포스코 협력사티엠테크의 실소유주인 박모(58)씨가 포스코그룹의 특혜성 발주로 티엠테크에 돌아간 수익 중 22억여원을 따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9일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등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지원이 강화된다.

▲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지만 가해자의 10명 중 7명가량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당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혁신안을 밀어붙이고는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 당의 혁신안을 비판해 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곧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 전격 회동했다.

▲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심학봉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다.

국제

▲ **중국**의 부도 위험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본격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선행을 하기 위해 네팔 대지진 참사현장을 찾은 미국인 여교사가 현지인에 의해 **살해**된 뒤 사체까지 유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 중국의 8월 수출이 부진한 데는 **톈진항 폭발 사고**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다.

▲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영국 상원 위원회에 출석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조직적인 성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징어 말리는 가을 풍경 9일 강원 강릉시 해안가 마을에서 주민이 가을볕에 오징어를 말리고 있다. 예전에는 가을이면 동해안에는 오징어를 말리는 모습이 장관이었으나 최근에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이마저도 점차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이 국내 대기업 중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영향력과 수익성은 줄고 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동시에 공개하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 현대자동차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6세대 완전변경 모델 **아반떼AD**를 출시했다.

▲ 독일에서 열리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7~27일 열리는 이번 모터쇼에서는 전세계 1100여개 업체가 참가해 각사의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상품 수수료율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시중은행 가운데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곳은 국민은행, 임직원 횡령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드러났다.

▲ 9일 글로벌 증시 훈풍에 따라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내며 코스피가 193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도 동반 급등하며 660선을 탈환했다.

▲ **국내 주식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크게 올랐다. 앞서 '버블 논란'에 따라 조정을 거친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와 탈세혐의로 10일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 **TV홈쇼핑** 업계가 최근 4년간 보험 판매로 1조7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TV홈쇼핑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홈쇼핑 회사들은 보험 판매 수수료로 1조732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 관세청이 10월부터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하는 **과세운임**을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이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된다.

한국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

지난달 29일 강원 양구군 남면 창리 아름다운 동행 요양원·재가센터가 설립 8주년을 맞았다. 양구군노인회, 89개리 경로당 등 지역 어르신 250여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한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있다. /뉴시스

종합지수 96개국 중 60위 가장 중요한 경제력은 82위 2013년 첫 조사서도 하위권

한국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 인구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제 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워치'(global agewatch) 지수에서 한국은 96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60위에 머물렀다.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는 이 단체가 2013년 처음 도입한 지수로 흔히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지수로도 불린다.

이 지수는 노인들의 능력발휘, 건강, 소득 안정성, 생활환경 등 4개부문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해 산출한다. 100이 가장 이상적인 수치다.

일본은 80.8점(8위)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톱 10안에 들었다. 한국은 종합점수가 44.0점에 그쳐 태국 (34위, 56.0점), 베트남(41위, 51.8점), 스리랑카(46위, 49.8점), 필리핀(50위, 48.8점), 중국(52위, 48.7점), 타지키스탄(58위, 45.1점)에도 뒤졌다.

한국은 내용 면에서는 더욱 좋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소득 부문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노년층의 빈곤율이 48.5%로 전체 평균 12.9%를 크게 상회하면서 96개국 가운데 82위를 차지했다. 노인 고용은 64.3%, 2차 교육은 45.9%로 노인들의 능력발휘 부문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오히려 한국의 노인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한국은 건강 부문에선 96개국 가운데 42위에 올랐다. 현재 60세인 사람의 남은 기대 수명은 24년, 이 가운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대 수명은 18.3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환경 부분에선 54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3년 10월 1일 처음 발표된 조사에서도 종합지수 39.9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에 그친 바 있다.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93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8.5%에 해당한다. 그 비중은 2030년 31.4%, 2050년에는 41.5%로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스위스(90.1점)가 차지했으며 노르웨이(89.3점), 스웨덴984.4점), 독일(84.3점), 캐나다(84.0점), 네덜란드(83.0점), 아이슬란드(81.8점), 미국(79.3점), 영국(79.2점)이 10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3.6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말라위(4.1점), 모잠비크(4.5점), 팔레스타인(12.3점), 파키스탄(12.7점) 순위로 점수가 낮았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홈플 매각반대 대책위, 도성환 고소

'배임·탈세' 혐의

<홈플러스 사장>

홈플러스(사장 도성환)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성환(사진) 홈플러스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와 탈세혐의로 10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도성환 사장이 홈플러스 사장으로 취임한 2013년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테스코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20배 이상 높아졌으며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 또한 시중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돼 지급됐다"며 "이는 (도 사장이) 모기업 테스코의 이익을 위해 홈플러스의 경영상 불이익을 가져온 업무상 배임이며 탈세행위"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도 사장의 배임과 탈세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도 사장의 배임과 탈세혐의뿐만 아니라 테스코의 탈세행위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minus@

상봉 후보 미선정, 할머니의 눈물 9일 오전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센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한 조갑순(82)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센터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네팔인, 구호 돕던 미국여성 살해

선행을 하기 위해 네팔 대지진 참사현장을 찾은 미국인 여교사가 현지인에 의해 살해된 뒤 사체까지 유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달리아 예히아라는 25세의 미국인 여성이 지난달 4일 살해됐다. 이 여성은 지난해까지 미 텍사스 주 오스틴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하다가 지난 7월 봉사활동을 위해 네팔에 입국했다.

이 여성을 살해한 이는 나라얀 파우델이라는 이름의 현지 남자교사다. 범인은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힌 뒤 이 여성을 망치로 때려 죽였다고 자백했다. 여성의 시체는 경찰이 안나푸르나 남쪽을 흐르는 세티강에서 찾아냈다. 범인은 이 여성이 가진 돈을 노렸다.

살해된 여성의 친구인 메건 모하터는 CNN에 "달리아는 화가로 그녀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장했다. 매우 재능있는 친구"라고 말했다. 숨진 여성의 친척들은 '달리아 찾기'라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무참하게 숨져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자 연인이며 인도주의자로 국내외에서 자신보다 행운이 덜한 이들에게 자신을 바쳤다"고 적었다. 또 "그녀가 비록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으며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라고 적었다.

/송시우 기자 swsong@

미 38노스 "북한 영변서 플루토늄 추출 움직임"

내달 10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최신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차량 이동을 비롯한 새로운 움직임이 확인됐다.

위성사진에서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대형 트럭들이 5000K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재처리시설) 주변에서 발견된다. 이 시설들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핵심적인 시설이다.

38노스의 윌리엄 머그포드와 잭 류 연구원은 이 같은 차량 이동에 대해 "플루토늄을 새로 생산할 목적으로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준비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며 "추론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증대하려는 의미 있는 거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사진에 나타난 움직임이 영변의 핵시설을 현대식으로 고치려는 보수작업이거나 원자로의 오염 장비를 보관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해 방사화학 실험실로 옮기는 과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38노스는 정보가 제한돼 움직임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국제자문단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던 중에 "북한은 핵폭탄을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한다는 목적이 있어 과학자들이 핵폭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핵실험을 요청하는 것 같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4차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은 당 창건일 이후인 10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해 자칫 북한의 무력 시위로 인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문재인, 혁신안 드라이브… '재신임' 승부

"당 분열행위 금도 넘었다"
혁신안 마무리에 맞춰 투표
혁신안 무산돼도 사퇴 의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당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혁신안을 밀어붙이고는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안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신임 투표는 혁신안 마무리 시점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문 대표는 혁신안이 무산되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모두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 당무위를 통과한 뒤 오후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제가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늦기 전에 우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기득권 때문에 혁신이 좌절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문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재신임투표 방법은 지난해 4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실시했던 방식이 유력하다. 당시 여론조사는 일반국민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실시됐다.

문 대표는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배경과 관련해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는 오로지 단결과 단합을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포용하고 또 포용했다. 신당, 분당을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조차 단결의 틀 안에서 끌어안으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이다. 그런 행태가 반복될 때마다 당은 힘이 빠지고 국민들은 외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혁신하자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어려운 지역에서 승리를 위해 땀 흘리는 대다수 의원들과 당원들의 노력도 허사가 된다.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면 당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과 혁신안이 모두 통과된 이후 행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재신임으로 저에게 혁신과 단결의 대원칙을 명령해주시면 저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명령을 받들겠다. 당을 더 혁신하고 기강을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포용과 단합과 통합을 향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 재창당에 가까운 뉴 파티(NewParty)비전도 제시하겠다. 혁신의 기운, 단결의 정신, 승리의 자신감으로 당을 새롭게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며 "오로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로 일치단결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청와대 '유승민 왕따' 논란

朴 대통령, 대구 행사서
지역구 의원 안 불렀지만
송도에선 與野 모두 초청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지역 행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승민 왕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진 인천 송도 행사에서는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초청을 받은 여야 의원들 중 새누리당의 인천시당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과 박상은 의원 등은 참석하고, 같은 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박남춘·윤관석 의원 등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는 지난 7일 대구지역 행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지만 지역구 의원을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 의원과 박 대통령과의 악연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유 의원을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만남 자체가 불편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유 의원만을 배제하는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실무진에서 의원들을 초청대상에서 모두 배제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의원들 참석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고 참석 범위는 행사를 주체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행사는 17개 광역시도가 주체가 됐다.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초청한 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지역 행사는 정치색을 경계한 대구시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격을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송병형 기자

안철수 "정권교체 위해 천정배와 함께 해야"

천 의원 요청으로 전격 회동
신당 합류 제안여부 초관심

안철수(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곧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 전격 회동했다.

이날 두 사람은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가량 국회 의원회관의 안 의원실에서 배석자 없이 만났다.

회동을 요청한 쪽은 천 의원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이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선 만큼 안 의원에게 신당

합류를 요청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안 의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상태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천 의원 측은 신당 합류 요청과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체적 혁신도 어렵고 혁신으로 살아나기 어렵다고 봤다. 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회동 이후 대화 내용에 대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당의 혁신으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심학봉, 버티기 모드… 김무성 말 안먹히나

윤리특위 16일 징계 논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심학봉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심 의원이 자진 사퇴는 어렵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 대표는 당내 정기국회 대책회의에 예정에 없이 들어와 심 의원과 지역구가 가까운 이철우 의원에게 "심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며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 의원에게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이 의원이 이를 김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참석한 의원들에게 윤리특위의 심 의원 징계 논의 상황을 물어보고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이 옳다"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강조했다고 한다.

윤리특위의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는 지난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일정을 지연시켜 불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자기 식구였던 심 의원을 감싸기 위해 지연작전을 쓴다는 비난이 일자 윤리특위는 오는 1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심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송병형 기자

24시간 감염병 감시·폭력피해 지원 강화

2016년 민생안정 주요사업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추진

정부는 9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387조 규모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이들에 대한 맞춤형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에 아이돌봄 지원을 집중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야간·주말)와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뜻을 모은 것이다.

먼저 맞춤형 복지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가족 등으로 대상자별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정착시킨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대비 28%에서 29%로 완화되고 최대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오른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이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일자리는 5만개 증가한 39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지원(464 → 480만명)해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지원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3.1→3.8만명), 광역치매센터 확대(13→15개소), 노인무릎수술비 지원(1850 → 2,600명)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돕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신규로 실시(전국 700개 주민센터)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제공(662억→707억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40→55억원)과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지원(5만8000→6만1000명) 등을 통해 소득 보장·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기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겐 온라인 교육·취업상담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등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60억→110억원)해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제고한다.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512억원)과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도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국민 안전·치안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안전CCTV설치(346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00억),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찾아가는 상담 전문인력과 쉼터 종사자도 늘리기로 했다.

CYS-Net는 올해 200개소에서 다음해 222개소로 늘리고,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시 238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8억원 늘어난 197억원을 책정했다.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늘리고,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정을 지원하는데 608억4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하는데 1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아이돌보미 시간당 이용단가는 6000원에서 61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459억원을 투자하고,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폭력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34억원을 책정했다.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예산을 41억원에서 56억원으로 증액했다.

3년마다 이뤄지는 폭력피해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성폭력실태조사에 6억2000만원, 성매매 실태조사에 5억원,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3억5000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 발굴과 전시에 14억5000만원, 학술심포지엄에 8억3000만원을 사용키로 했다.

이 밖에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98억원을 투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 복지수요를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민생안정 주요 지원사업을 담은 2016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인양 준비중' 150t을 들어올릴 수 있는 480t급 크레인 바지선 동아150호가 9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 청도 해상에 도착한 가운데 해경과 해군, 인양업체 관계자들이 돌고래호(9.77t, 해남 선적) 인양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합의부 판결문에 법관 1명만 서명… 절차 위법"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빠져있고,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아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되는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에 의한 판결은 위법해 파기사유가 된다는 취지다.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5차례에 걸쳐 1억128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거래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2010~2011년 저지른 6000만원 상당의 다른 사기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심리를 진행한 법관 3명 가운데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했다. /연미란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 매년 급증

10명 중 7명 솜방망이 처분

아동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급증하지만 가해자의 10명 중 7명가량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총 116건이다.

이 중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20건(17.2%)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46건, 벌금 등 재산형은 33건으로 더 많았다. 집행유예의 비율은 39.7%,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합하면 전체의 68.1%였다.

지난해에는 총 129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자유형 비율은 16.3%(21건)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56건, 재산형은 27건으로, 합하면 전체의 64.3%에 달한다.

최근 5년 집행유예 및 재산형 비율을 보면 2011년 73.3%, 2012년 75.7%, 2013년 73.3%, 지난해 64.3%, 올해 상반기 68.1%로,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2년 48건, 2013년 98건, 지난해 177건 등 3년 만에 6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1~6월에만 146건이 접수됐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올해 상반기 총 16건이 처리됐다.

이 중 집행유예(5건)와 재산형(3건)이 절반을 차지했고,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5건이었다.

이병석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부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인 만큼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經 '세월호 CCTV영상 제출' 상고심 패소

지난 7일 영상자료 제출… 불법행위 발견 땐 손배 청구

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집회 감시 의혹'이 제기된 CC(폐쇄회로)TV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1·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별도의 재판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민사3부는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은 위법"이라며 서울경찰청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인용, 서울경찰청에 관련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송달문을 전달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박근용씨는 지난 4월 28일 집회 중 감시 의혹을 제기, 소송에 앞서 영상 소실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관할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박씨 등이 신청한 영상은 종로서 5건과 남대문서 4건이지만 증거보전 재판 과정 중 핵심 증거 가능성이 큰 종로서 영상이 모두 멸실되고 남대문서 영상 4건만이 남게 되면서 고의 삭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은 대법의 기각 판결로 서울경찰청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영상 검증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당기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측은 "법원이 집회와 관련 없는 영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최종 손배소 제기는 증거자료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박씨의 법적 대리인인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뒤 결과 영상을 신청인과 피신청인(경찰청)에게 준다. 그 영상을 토대로 우리(참여연대·박씨·최씨)는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의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시간 끌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이날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CCTV 감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검찰에 촉구서를 제출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9일 소비자·시민 간담회를 했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9일 소비자·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 등 공단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서울지역본부는 뉴비전과 미래전략을 선포한 배경과 미래전략의 주요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공단 주요 경영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담배소송 등 소비자·시민단체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일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공단의 미래상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선포한 바 있다.

임재룡 본부장은 "2025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70%,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8.5% 달성 등 새로운 비전의 5대 전략목표를 달성해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현장에서 그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며, 소비자·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이상득 측근 '포스코 특혜'로 22억 챙겨

檢, 소환 조사 방안 검토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자 포스코 협력사티엠테크의 실소유주인 박모(58)씨가 포스코그룹의 특혜성 발주로 티엠테크에 돌아간 수익 중 22억여원을 따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이 전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총괄했다는 점에 비춰 최소한 이 돈의 일부는 불법 정치자금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최근 티엠테크 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22억여원의 수익을 가져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2008년 말 설립된 제철소 설비 시공·정비 업체인 티엠테크는 2009년부터 포스코 켐텍이 다른 협력사로부터 끌어다 준 물량을 집중 수주해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왔다.

이런 특혜성 수주로 티엠테크가 거둔 수익 중 일부는 박씨에게 돌아갔다. 최대주주에게 주는 배당뿐 아니라 이 회사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가족 앞으로 지급된 급여 등 총 22억여원을 박씨 측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명목상 박씨의 개인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의원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렇다 할 사업실적이 없던 티엠테크가 설립 이듬해부터 매출 100%를 포스코에 의존하며 사업을 이어 온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포항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덕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이구택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원 일부는 티엠테크 수주계약이 이 전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씨는 이 전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총괄하고 지역사무소를 관리하면서도 이 전 의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박씨가 티엠테크 특혜 수주로 누린 금전적 이익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정치 활동비로 공유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포스코가 2009년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문제로 중단시켰던 포항 신제강공장 공사를 이 전 의원의 직간접적 지원 속에 2011년 재개했다는 점에서 티엠테크 특혜 수주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포스코의 '보은'이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른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티엠테크의 수주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박씨가 챙긴 수익금의 용처를 추적하며 이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오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재임 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인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티엠테크 발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연미란 기자

法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됐다.

당시 예배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1심은 A씨가 그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한 A씨는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은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미란 기자

김장철 앞두고 '김치냉장고' 신기술 대전

삼성·LG, 신제품 공개 대유 딤채마망도 가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9일 동시에 공개하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김치를 오랜기간 보관할 수 있는 메탈그라운드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LG전자는 유산균을 12배 더 많이 만들어주는 유산균김치플러스 기능을 적용한 김치냉장고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김치냉장고의 재질뿐만 아니라 김치통도 '메탈' 소재를 적용한 프리미엄 신제품 '지펠아삭 M9000' 등을 출시했다. '메탈그라운드'는 김치를 온도 변화가 적은 땅 속에 보관해 김치의 맛을 살리는 효과를 구현했다. 메탈 소재를 사용해 냉기 전달과 보존 능력을 최대로 높였다. 이를 통해 ±0.3℃의 정온 유지가 가능하다는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스테인리스 소재의 '메탈쿨링김치통'을 탑재한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 김치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모델이 디오스 김치톡톡 김치냉장고신제품인 565ℓ 스타리샤인을 소개하고 있다.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 M9000'은 505ℓ, 567ℓ 2가지 용량의 총 12모델이 출시되된다. 출고가는 229만9000원~574만9000원대다.

LG전자도 이날 김치냉장고 신제품 '디오스 김치톡톡'을 선보였다. 디오스 김치톡톡의 핵심은 '유산균김치플러스' 기능이다.

'유산균김치플러스' 기능은 김치 유산균 연구 전문가인 조선대학교 장해춘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감칠맛을 살려주는 유산균인 류코노스톡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이 기능은 일반 보관 모드 대비 류코노스톡을 12배 더 많이 만들어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 준다. 서랍문을 여닫을 때 냉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고 온도 편차를 줄여주는 유산균가드 등을 적용했다. 김치 외에도 쌀·잡곡, 야채·과일, 육류·생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 보관함도 적용했다. 이 제품은 131ℓ부터 836ℓ까지 39종이 출시된다. 이 중 스탠드형은 23종이다. 출고가는 스탠드형 170만~415만원, 뚜껑식 60만~120만원이다.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대유위니아도 딤채마망으로 상반기 매출 상승세를 하반기로 이어갈 예정이다. 딤채마망은 곡선 디자인을 현대적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해 제품 외관에 접목한 제품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색상을 갖추고 있다. 히든 디스플레이와 핸들 데코를 반원 형태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모션센서를 탑재해 사용자가 다가서면 히든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웰컴 라이팅' 기능도 있다. 파스텔블루, 로맨틱레드, 크림화이트 3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스탠드형 신제품 46개 모델은 195만~504만원, 뚜껑형 37개 모델은 69만~186만원, 딤채 마망은 299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의 메이크업 현장 제주항공은 9일 서울 서소문 영업소에서 신규 입사교육 중인 객실승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교육을 실시했다.

SK 세종창조센터, 동남아 '농업 한류' 시발점 되나

동남아 국가 주요인사 잇단 방문 개소 3개월만에 1300명 이상 찾아

SK그룹이 후원하는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동남아 국가 주요인사의 핵심 방문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 팜'을 직접 둘러보고, 자국 농업에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다.

9일 세종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전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 22명이 방문해 세종센터 곳곳을 둘러본 데 이어 스마트 팜이 설치된 세종시 연동면 토마토 농가도 방문했다.

SK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마트팜을 방문한 베트남 고위공무원 22명이 8일 스마트폰을 활용해 토마토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SK 제공

중앙공무원교육원초청으로 8월 말부터 2주간 한국에서 '핵심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베트남 감사원 부원장, 공안청장, 공군 부사령관, 지역 인민위원회 부 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만 10명에 이른다. 나머지도 각 부처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실무 요원들로 베트남 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로 꼽힌다. 방문단은 현장에서 '스마트 팜' 설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묻는 등 큰 관심을 표했다. 센터 측은 지난해 10월 SK그룹이 스마트 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생산성이 22.7% 증가한 반면 노동력과 생산 비용은 각각 38.8%와 27.2% 줄었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이어 세종시 연동면 스마트 팜 시범마을을 방문, 첨단 ICT와 전통 농업이 접목된 현장을 둘러봤다. 방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부 하이 산 소장(국방부 제3군사지역 부사령관·차관급)은 "스마트 기기로 비닐 하우스 실내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세종센터는 지난 6월말 개소이래 각계 각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소 석 달이 채 안된 9월 8일 현재 1300명이 넘는 인원이 센터를 찾았다. 농업 종사자를 비롯해 해외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중인 전문업체, 농촌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벤처 투자 기업체, IT업체, 초·중·고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길성 센터장은 "세종센터가 국내 스마트 농업의 메카뿐 만 아니라 농업 한류를 이끄는 전진 기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

삼성, 세계 최초 '12Gb 모바일 D램' 양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12기가비트(Gb) 모바일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12기가비트 대용량 LPDDR4 D램을 이달부터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작년 12월 양산을 시작한 2세대(20나노) 8기가비트 LPDDR4 D램보다 용량은 50% 향상, 속도는 30% 이상 높인 4266Mbps를 구현해 최신 고속 PC용 D램보다 2배 빠르며, 소비 전력은 20% 줄였다.

또한 1세대(20나노급) 8기가비트 LPDDR4 D램보다 생산성을 50% 이상 높였다.

12기가비트 D램은 칩 하나로 1.5GB의 대용량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칩 4개를 쌓아 올려 차세대 모바일기기에 탑재될 초대용량 6기가바이트 모바일 D램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6기가바이트 LPDDR4'는 최신 OS기반 태블릿PC에서 최고 성능을 구현하고 배터리 사용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특히 6기가바이트 패키지는 독자 개발한 초소형 설계 기술을 적용해 기존 3기가바이트 패키지와 크기·두께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12기가비트 LPDDR4 D램에 기반한 올인원 메모리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메모리의 사업 영역을 기존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을 넘어 울트라슬림PC, 디지털 가전, 차량용 메모리 시장까지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3000만원 전달

에쓰오일은 9일 벌집 제거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고 이종태 지방소방위는 7일 오후 경상남도 산청군 중태마을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신고자와 상황파악을 하던 중 말벌에 눈을 쏘여 병원에 이송됐으나 순직했다.

에쓰오일 측은 "근무여건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에쓰오일은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과 함께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지난 10년간 44명의 순직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소방관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전기차·자율주행… 코 앞으로 달려온 미래

미리 보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1100여개 업체 신기술 뽐내
BMW '뉴 X1' 세계 첫 공개

독일에서 열리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Internationale Automobil Ausstellung)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1897년 세계 최초로 개최된 모터쇼다.

17~27일 열리는 이번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11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저마다의 최신 기술을 뽐낼 예정이다.

9일 각사에 따르면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는 'i20 액티브'를 유럽시장에 최초로 공개한다.i20 액티브는 유럽 전략차종 i20을 기반으로 개발한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이다. 내년 초 유럽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현대차는 i20 액티브, 싼타페 상품성개선 모델과 더불어 고성능 브랜드 'N'의 방향성을 소개한다. 차세대 'i20 랠리카', 콘셉트카 'RM15', 'N 비전 그란 투리스모' 쇼카,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된 'i40', 쿠페 콘셉트카 '비전 G' 등도 함께 전시한다.

기아자동차는 신형 스포티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신형 K5도 유럽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롱보디의 양산형 콘셉트카 'XLV-Air'를 최초 공개한다. 또 티볼리 디젤을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이와 함께 콘셉트카 'XAV'와 티볼리, 코란도 C(현지명 코란도) 등 유럽 주력판매 모델을 전시한다.

BMW는 이번 모터쇼를 위해 여러 신모델을 준비했다. 6세대 플래그십 뉴 7시리즈와 2세대 '뉴 X1'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e드라이브 기술을 접목시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뉴 740e, 뉴 330e, 뉴 225xe 액티브투어러 등도 처음 선보인다. M 트윈파워터보 V8 엔진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차체를 적용한 '뉴 M6 GT3'를 최초 공개하는 한편 스페셜 모델인 '뉴 M6 컴피티션' 에디션도 함께 전시한다.

인피니티는 브랜드 최초 엔트리급 콤팩트 모델인 올 뉴 인피니티 'Q30'을 처음 공개한다.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Q30 콘셉트카를 공개한 바 있는 인피니티는 이후 2년 만에 양산형 모델을 같은 자리에서 선보이게 됐다. 올 뉴 Q30은 인피니티의 콤팩트 차량에 대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한 모델이다.

푸조는 신기술을 집약한 콘셉트카 '프랙탈'과 '308 GTi by PEUGEOT SPORT' 2개 모델을 최초 공개한다. 또 '308 R 하이브리드' '308 레이싱 컵' '비전 그란 투리스모' 'RCZ R' '208 GTi by PEUGEOT SPORT' 등 차량을 전시한다. 프랙탈은 일렉트릭어반쿠페로 불리는 도심형 전기차 모델이다. 전장 3810㎜, 폭 1770㎜의 콤팩트한 차체에 중량은 1000㎏이다. 엔진은 전후방으로 배분된 2개의 전기모터를 사용해 최대출력 204마력, 한 번 충전 시 450㎞를 주행할 수 있다.308 GTi by PEUGEOT SPORT는 고성능 해치백 모델이다. 1.6L THP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이르는 시간은 6초 수준이다. 안전을 위해 최고 시속을 전자적으로 250㎞/h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탑재했다.

시트로엥은 신개념 오픈 에어 크로스오버 '칵투스 M'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푸조 프랙탈(Fractal)

시트로엥 칵투스 M 콘셉트카

쌍용차 XLV-AIR 콘셉트카

현대차 i20 액티브

사전계약 2주만에 5000대 돌파 "연 5만대 판다"

현대차

6세대 모델 아반떼AD 출시
콜롤라·시빅보다 성능 월등

1074만대. 현대자동차가 1990년 아반떼 1세대를 출시한 후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대수다. 지난해 10월 국내기업이 생산한 단일 차종 중 최초로 전 세계 누적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차는 9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6세대 완전변경 모델 아반떼AD를 출시했다. 신형 아반떼는 사전계약 실시 2주 만에 5000대 기록을 세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신형 아반떼의 가격은 1531만~2371만원이다. 이 중 주력모델인 1.6ℓ 가솔린 스마트 모델의 가격은 1765만원이다. 이전 모델 대비 48만원 올랐다. 1.6ℓGDi 엔진의 최고출력은 132마력, 최대토크는 16.4kg·m다. 복합연비는 13.7km/ℓ다.

김상대 현대차 국내마케팅실 이사는 "인터넷에서 신형 아반떼 디자인에 대한 반응이 좋다"며 "혁신적인 성능개선과 연비도 많이 좋아져 차량 선호도도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웅철 현대차 연구개발총괄 부회장은 "신형 아반떼는 경쟁모델인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보다주행성능·안전사양 등 모든 부문에서 앞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신형 아반떼에 2000만대 판매를 향한 의지가 담겨있음을 강조했다.

/화성=정용기 기자 yonggi@

9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신형 아반떼 출시 행사에서 곽진 현대차 부사장(왼쪽)과 양웅철 현대차 연구개발총괄담당 부회장이 아반떼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마일리지에 맞는 곳, 한 눈에 고르세요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여행지 추천

대한항공은 9일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이 마일리지 항공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너스 항공권 이용 추천 여행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 스카이패스 코너에 새로 마련한 해당 서비스는 2주일 이내에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일본·중국·중거리·장거리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각 지역별로 마일리지 좌석 여유가 있는 도시를 고객에게 추천,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너스 항공권 좌석 여유가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 스카이패스 회원이 마일리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미주, 유럽, 동남아, 대양주 등 지역별로 마일리지 좌석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정필 기자

길이 아니라고 못 달릴 쏘냐!

시승기

크로스컨트리
4륜구동으로 험로 '거뜬'

크로스컨트리의 사전적 의미는 언덕, 목초지, 도로 등 다양한 지형을 달리는 것이다.

볼보자동차 크로스컨트리(사진)는 AWD(상시4륜구동)를 바탕으로 험한 지형도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

8일 크로스컨트리를 몰고 경기도 가평의 유명산과 그 주변 30km를 달려봤다.

왜건형 모델 V60에 기반을 둔 크로스컨트리는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2.8kg·m의 힘을 낸다. 일반도로에서 강력한 토크 덕분에 차는 액셀을 살짝만 밟아도 빠르고 부드럽게 쭉 뻗어나갔다. 2.4ℓ 디젤엔진이 장착된 크로스컨트리는 엔진 소리가 제법 컸다. 100km/h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는 땅에 '착' 달라붙어 흔들림 없이 치고 나갔다. 시승했던 크로스컨트리 D4 AWD 트림은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8.9초가 걸린다. 국도 25km 정도 시승 후 나온 연비는 12.9km/ℓ였다.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은 유명산 오프로드 구간에서 나타났다. 흙·돌이 깔린 오르막 도로에서 미끄러짐 없이 치고 나갔다. 경사가 제법 가팔랐는데도 헛바퀴 돌지 않았다. 크로스컨트리에 적용된 4륜구동 시스템은 접지력이 충분한 마른 노면에서는 전륜에 모든 동력이 배분된다. 또 노면 상황이 변화되면 즉각적으로 후륜에 동력을 50%까지 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길이 비좁았던 곡선 구간에서는 스티어링 휠의 즉각적인 응답력이 인상적이었다.

크로스컨트리는 왜건의 실용성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주행성능이 더해진 차다. 캠핑·레저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일 듯하다.

크로스컨트리는 3가지 트림 D4, D4 AWD, T5 AWD로 판매된다. 가격은 5220만~5550만원이다. / 가평=정용기 기자

삼성 스마트폰 '제2의 노키아' 되나

입지 약화 우려… 더 밀리면 시장서 도태 가능
삼성페이·기어S2 등 시너지 활용 기회 잡아야

최근 침체의 늪에 빠진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전략적 변곡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체기에 들어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전략과 혁신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더의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사업전략과 전략형 신제품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과 샤오미·화웨이 등에 낀 상태로 입지가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영향력과 수익성은 줄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2012년 한때 안드로이드 OS 진영에서 점유율 40%이상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20%대로 떨어졌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점유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위로 밀려났다. 중국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온라인 판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존 오프라인 판매망을 고수하면서 시장공략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IM(IT모바일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익률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갤럭시노트5에 탑재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는 모습(왼쪽)과 기어S2를 착용한 삼성전자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전철을 밟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상향평준화 됐고,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으로 꼽혔던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희석되면서 더 이상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노키아와 모토로라는 불안 신호가 감지된 후 3~5년 사이에 무너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좋지 않은 것은 판매 실적과 주가 흐름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페이·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한 시너지 확대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S6 후속 모델의 성패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스마트폰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생태계 구축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와 스마트워치 '기어 S2'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는 이유에서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추이 (단위:명)

가입자	'14년	'15년 1분기	'15년 2분기	'15년 3분기 (9월 8일 기준)
순증	21,185	31,330	458,655	488,856
누적	21,185	52,515	511,170	1,000,026

SKT '20% 요금할인' 가입자 100만명 돌파

SK텔레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고객의 관심이 다소 낮았으나, 요금할인 혜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분기에는 45만여 명, 3분기에는 현재(9월 8일 기준)까지 48만 여명이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이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당 월 평균 요금할인액은 약 8000원 수준으로, 현재 100만 명 가입자 기준으로 연간 약 960억 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00만 명의 고객 중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고객 (신규·기기변경)과 기존 사용중인 단말기로 가입한 고객 비중은 각각 52%와 4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사를 옮기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기변경 가입자 숫자가 신규 가입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들이 기기변경 선호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경 기자

'스타트업·중소기업 IoT 개발 지원' 나서

LG유플러스-美 퀄컴 협약

LG유플러스는 미국 퀄컴과 손잡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사물인터넷(IoT)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김선태 SD(Service Development)본부 부사장과 이태원 퀄컴코리아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IoT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유플러스는 LTE오픈이노베이션센터에 등록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우수아이템을 발굴하고 퀄컴은 프로젝트 당 10만달러를 지원한다.

양사는 IoT 환경이 개인에서 홈,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LTE기반의 영상플랫폼을 탑재한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발굴, 개발할 예정이다.

서재용 LG유플러스 IoT서비스개발팀 팀장은 매년 우수 기술 기업을 발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SKT, 美 국회서 '양자암호통신' 시연

암호화 기술 중 보안 최고
보안분야 신기원 마련될 것

'양자암호통신' 기술. 현존하는 암호화 기술 중 가장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이 기술의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SK텔레콤이 정보보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이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현지시각)美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美 국회의원, 정부기관 관계자, 언론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신보안기술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을 전시하고 도·감청 실시간 탐지 등 핵심기능을 시연했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불확정성'과 '비복제성'이라는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전송중인 데이터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

8일(현지시간) 美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美 국회의원, 정부기관 관계자,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전시·핵심기능 시연회에 참석한 조 윌슨 美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가운데)이 SK텔레콤의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이 기술이 적용되면 국방 행정 등 주요 정보가 오가는 국가기간망이나 금융망, 의료망 등 다양한 산업 보안 분야에 신기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연은 美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 윌슨, 월터 존스 의원과 하원 예결위원회 소속인 로버트 애더홀트 공화당 의원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美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기술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조 윌슨 의원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이버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SK텔레콤의 양자암호화 기술에 대해 많이 배워서 영광이다. SK텔레콤이 하는 일은 세상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일이다. 한국과 미국 같은 동맹적인 관계에서, 양자암호통신을 통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8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의 '올레 인터넷전화 D1' 출시를 알리고 있다. /KT 제공

KT, 스팸 알려주는 '올레 인터넷전화 D1'

KT가 9일 스팸 전화를 미리 알려주는 '올레 인터넷전화 D1'을 출시했다.

KT는 올레 인터넷전화 D1에 '후후 스팸정보' 서비스를 적용해 전화가 울릴 때 발신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인터넷전화 전용 단말기 중 처음이다.

올레 인터넷과 3년 동안 같이 가입하면 월 3500원 요금에 단말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올레 닷컴(www.olleh.com)이나 고객센터(☎100), KT 지사, 올레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美 금리 올리면 안돼"… 전방위서 쓴소리

전반전 경제활동 위축·불평등 악화될 것
IMF "물가상승 조짐 보일 때까지 늦춰야"

미국의 금리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세계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선 안된다고 주장한데 이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도 이같은 요구에 동조했다. 특히 라가르드 IMF 총재는 미국이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7일(현지시간)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실은 '지긋지긋한 연준'(Fed Up with the Fed)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반 근로자와 미국 경기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표와는 다른 고용 현실과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금리인상 반대론을 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5.1%로 발표됐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와 한계 고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10.3%로 올라간다. 올해 들어 미국 일반 근로자의 실질 임금도 0.5% 나 줄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때 올린다"면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인 연 2%에 훨씬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 인상은 미국 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는 아주 쉬운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연구원 카우식 바수도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수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장은 일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 성장 전망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신흥국가들에 공황 상태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초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면서 미국에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을 향해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금리를 오랜 기간 인상하지 않았다"며 "내가 감히 말하자면 연준은 영원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IMF는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NH농협생명, 9월9일 '구구데이' 맞아 '희망 치킨' 지원 NH농협생명은 9일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130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해 약 700만원 상당의 목우촌 또래오래 치킨 431마리를 지원했다. /NH농협생명 제공

7월 가계대출 증가폭, 역대 세번째

낮은 대출금리·주택거래 호조 영향

지난 7월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이 늘어났다.

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3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에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모기지론 6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9조5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월간 기준으로 9조9000억원이 증가한 올해 4월과 10조1천억원이 늘어난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낮은 대출금리 수준과 주택거래 호조로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의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만2100가구로, 2006~2014년 7월 평균 거래량(4600가구)의 3배 가까이 된다.

7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96%로, 2%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양도분을 포함한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총 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의 3분의 2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잔액은 7월말 현재 295조6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2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6월의 3조20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과 보험·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의 대출까지 합한 전체 가계신용 규모는 6월 말 현재 11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기태 기자

'꺾기왕'은 국민銀·'횡령왕'은 신한銀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 추락세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가운데 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곳은 국민은행, 임직원 횡령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신한은행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의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꺾기'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꺾기 건수기준 1위는 679건에서 152억9000만원을 챙긴 국민은행이 차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기업은행이 202억원을 챙겨 가장 많았다.

꺾기(예금·보험 등 구속행위)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같은 수치가 제보와 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실제 고객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별 횡령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28건으로 시중은행 중 1위를 차지했다. 횡령금액으로는 국민은행이 22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은행권은 내수시장 포화상태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비이자수익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지만,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은행권 전체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의 도입으로 꺾기와 횡령 등 불건전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전한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선진화, 위법사항 제재·처벌 강화, 상시감시지표 운용 등을 통해 획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보배 기자

한화생명

업계 최초 사전증여신탁 출시

안정적 운용·세테크 증여 가능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장기 안정적 투자와 세테크가 가능한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신탁에 가입하면서 운용 대상 자산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소액자금으로도 투자성향에 맞는 예금, 국공채 및 가치주, 성장주와 같은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분할 운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어 수익률 관리도 용이하다.

신탁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후 한화생명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보배 기자

버블 걷어낸 '제약·바이오株' 지금이 기회?

일동제약·LG생명과학·제일약품 등 의약 전 종목 상승
두 달새 제약 업종 조정… 1만→6000포인트 대로 급락

국내 주식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약·바이오주는 앞서 높은 평가가치(밸류에이션)로 '버블 논란'이 일며 조정 상태에 들어갔었다. 거품을 걷어낸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의약품 업종은 전 거래일 대비 39.67포인트(5.33%) 오른 6707.8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의약품 전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한독이 14.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동제약(11.34%)과 제일약품(11.14%)도 급등했다. 국제약품과 JW중외제약은 5%대 상승했고 동화약품(4.56%), 동성제약(4.43%), 유유제약(4.40%) 등도 크게 올랐다.

코스피200에 포함된 이연제약(13%), 경보제약(9.95%), 동아에스티(8.53%), 종근당(8.19%), 대웅제약(6.15%), 녹십자(6.11%), LG생활건강(5.59%), 국제약품(5.35%), 한미약품(4.88%)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업종은 전일 대비 45.44포인트(6.44%) 오른 5708.3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종목 중에선 서울제약(-1.54%)과 우진비앤지(-0.30%) 등 두 개 업체만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이-글 벳이 23.11%로 급등했고 에스탁파마(13.62%)도 크게 올랐다. 이밖에 안국약품(8.05%), 코미팜(6.89%), CMG제약(6.47%), 셀트리온(6.40%), 진양제약(5.02%) 등의 상승폭이 컸고 인트론바이오, 오스코텍, 조아제약 등도 4%대 상승했다.

이들 제약·바이오주는 올해 들어 급등하면서 상반기 주식 시장을 주도해왔다. 코스피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은 연초 4464.08포인트에서 6월 말 9070.86포인트까지 오르며 6개월 만에 103.2%나 뛰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인 릴리에 70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되며 유통·여행 주에서 발을 뺀 투자자가 제약·바이오주로 몰리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미약품, LG생활건강 등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두 달 조정을 거친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은 지난 7월 초 고점을 찍은 이후 반전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7월 6일 장중 한때 10281.73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은 의약품 업종은 다음 날인 7일 하루 만에 13.16% 폭락하며 최근까지 기나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7월 고점 이후 지난 8일 6368.73포인트까지 두 달여 만에 무려 38.05% 역주행했다.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종목별 투자를 조언하고 있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제약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과거 10년 역사적 고점보다 높거나 고점과 가까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R&D)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체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라"고 조언했다.

하태기 SK증권 연구원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 제약주 밸류에 이션 부담이 완화됐으나 기간 조정은 아직 남아있다"며 분할 매수 의견을 내놨다.

하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제약주의 큰 상승국면은 3번 있었는데 상승 이후 조정국면이 각각 4년, 1년, 1년6개월 정도 지속됐다"며 "8일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이 20.3 배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됐지만 조정 기간 측면에서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신한금투 '고객수익률 우수 직원' 선정

신한금융투자는 8월 '고객수익률 우수 직원 TOP5'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신한금투에 따르면 8월 수익률 우수 직원 5명은 한달 동안 9.0%의 고객 수익률을 보이며,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합주가지수(-4.4%), 코스닥지수(-5.2%)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의 연간 누적 수익률도 평균 49.3%로 등락이 큰 시장상황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올렸다.

고객 수익률 1위에 오른 이성태 의정부지점 PB팀장은 2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지연 연희동지점 PB팀장이 6.5% 수익률로 2위에 올랐다. 김희엽 논현지점 PB팀장(5.5%), 배사무엘 분당지점 PB팀장(5.5%), 김영복 여수지점 부지점장(3.5%)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성태 팀장은 지난 4월과 상반기 누적 수익률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올해에만 세 번째 1위를 차지했다.

이 팀장은 "대형주를 장기간 보유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시대는 저물었다"며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중소기업들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2년부터 '고객이 돈 벌어야 회사도 수익난다'는 고객 중심의 금융철학을 바탕으로 매월 고객 수익률이 우수한 직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평가는 PB들의 인사고과, 성과급까지 연동된다.

박성진 영업추진부장은 "고객수익률 평가제도는 저금리 시대 증권회사의 숙명"이라며 "고객의 이익과 직원의 행복, 회사의 성장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자산관리'가 가능하며 고객의 신뢰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배 기자

코스피-코스닥, 글로벌 훈풍 타고 나란히 급등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이어받아 급등했다. 코스피지수는 1900선을 회복하며 강세 출발해 전날보다 55.52포인트(2.96%) 오른 1934.2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2.45포인트, 3.52% 오른 660.67에 마감해 나란히 나흘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 가입 2만명

NH투자증권 유일 제공서비스

NH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올해 1월 출시한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 가입자 수가 2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는 피싱·해킹·금융사기로 증권 계좌에서 부당 인출되거나 증권카드가 부당 사용 되는 등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한도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일하게 NH투자증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보장 서비스는 NH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 누구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mug Smart)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김보배 기자

한·중·일 증시, 나란히 큰폭 상승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등

9일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내며 1930선을 회복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96%(55.52포인트) 오른 1934.20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급등하며 전날보다 3.52%(22.45포인트) 급등한 660.6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11년12월1일 3.72% 상승을 기록한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1209조9200억원으로 하루 만에 33조100억원 늘었고, 코스닥 시가총액도 182조470억원으로 4조5800억원 증가했다. 두 시장을 합쳐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38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날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대책과 인민은행의 추가 자금투입 소식에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증시가 나란히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밤 미국 다우 지수가 2.4% 급등한 데 이어 이날 상하이종합지수가 2% 이상 올랐고, 일본 닛케이 225 지수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폭인 7.7% 상승했다.

다만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4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은 역대 두 번째로 긴 25일간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증시 반등과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증권주가 7.56% 상승했다. 철강금속(5.68%), 화학(5.62%), 의약품(5.33%), 음식료품(4.00%), 유통업(3.91%), 보험(3.61%), 금융업(3.57%), 비금속광물(2.87%), 의료정밀(2.71%) 등 모든 업종이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선 아모레퍼시픽[090430]이 8.11% 급등한 것을 비롯해 POSCO(5.48%), SK하이닉스(3.60%), 삼성생명(3.44%), SK텔레콤(3.19%), 신한지주(2.93%), 한국전력(2.92%) 등이 상승세를 탔다.

시총 10위권에서는 현대차[005380](-0.64%), 기아차[000270](-0.40%), 삼성에스디에스[018260](-1.26%) 세 종목만 내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5원 하락한 1,189.4원으로 마감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강남권 재건축 분양가 하늘 찌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틈타 조합들 일반분양가 올려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측 3.3㎡ 당 2700만원대 요구 주변보다 400만원 높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2018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분양경기가 호전되고 집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이 너도나도 일반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분양을 하기로 했던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양가 합의 등이 지연되면서 9월에서 10월 하순으로 2차례 분양 연기됐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말 조합 관리처분 당시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2515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올해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상반기 분양을 포기하고 일반분양가 인상을 추진해왔다.

조합측은 분양가를 3.3㎡당 2700만~2800만원에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관리처분 당시 금액에 비해 3.3㎡당 200만~300만원 올린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 송파구의 일반분양가 권고안(3.3㎡당 2300만~2400만원)에 비해선 3.3㎡당 300만~400만원 이상 높아진 것이다. 현재 가락동 일대 새 아파트 시세(3.3㎡당 2300만~2400만원 안팎)와 비교해도 3.3㎡당 400만원가량 높다.

가락 시영의 일반분양분은 1550가구로, 분양가를 3.3㎡당 100만원씩 올리면 총 53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관리처분 계획보다 평균 200만원 정도만 올리면 추가부담금 없이 전체 조합원(6583명)이 대략 1인당 평균 160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일반분양분이 많아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중대형 분양가를 3.3㎡당 2500만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주체가 조합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조합 측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달 말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 SK뷰는 일반분양분 39가구의 3.3㎡당 분양가를 평균 3927만원에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를 3.3㎡당 최고 5000만원, 1·2차분의 평균 분양가를 4046만원에 책정한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대치동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관리처분 당시 조합에서 일반분양가로 3.3㎡당 3500만원대를 책정했으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변 시세 상승 분위기를 틈타 3.3㎡당 400만원 이상 가격을 올린 셈이다.

다음달 분양 예정인 반포동 삼호가든4차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대우건설)도 일반분양가를 3.3㎡당 4000만원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대치 SK뷰를 비롯한 인근 새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아파트의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 4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합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수원 권선 꿈에그린 투시도. /한화건설 제공

청약자격 없이 최대 10년 거주

한화 '수원 권선 꿈에그린' 18일 견본 오픈 10월 분양 월 임대료 연 5% 내 제한

한화건설이 9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stay)인 '수원 권선 꿈에그린' 모델하우스가 오는 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93-1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들어서는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32개동 규모다.

전용 59~84㎡ 총 2400가구로 구성된다.

특별한 청약자격은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초 계약시 보증금이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으며, 월 임대료는 연간 상승 5% 이하로 제한된다.

봉담IC,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가 가깝다. 봉담~동탄간, 평택~화성간, 봉담~광명간 고속도로와 수인선 고색역이 2017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오목·오현초교, 영신중, 영신여자고교 등이 가까이 있다. 단지 내에는 선큰광장과 조깅트랙, 스크린골프,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청약과 계약은 10월 예정이다. 분양문의는 1877-7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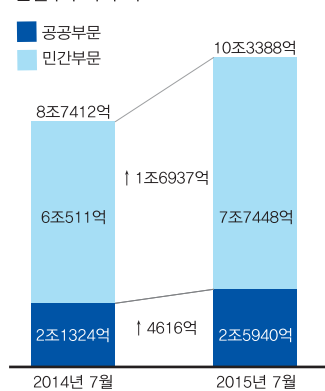
/차기태 기자

7월 국내 건설수주 10조 돌파… 전년比 26%

부동산 시장 호황에 주택부문 개선 효과

지난 7월 국내 건설수주가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26.3% 증가한 10조3388억원에 달했다. 민간부문은 33.2% 증가한 7조3598억원, 공공부문은 21.6% 증가한 2조594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주택부문 수주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 주택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동기(5조5234억원)대비 33.2% 증가한 7조3598억원을 기록했다. 인천도화 재개발과 창원오창 지역조합 아파트, 부산전포 2-1구역 재개발 공사 등 재건축·개발 수주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문 수주액 증가도 주거부문이 이끌었다. 공공주택 양산물금과 강릉유천 등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주거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24.9% 늘어난 1조16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비주거 부문 수주액은 감소했다. 민간 토목분야는 지난해 동월보다 27% 감소한 3850억원에 그쳤다. 공공부문은 사무실과 관공서 등 비주거부문과 토목분야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차기태 기자

대우건설 뉴스테이는 '행복마을 푸르지오'

12월 동탄2신도시서 첫 선 59~84㎡ 1135가구 규모

대우건설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stya) 브랜드를 '행복마을 푸르지오'로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주거공간'이란 푸르지오의 철학을 담아 이같이 정했다고 9일 밝혔다.

뉴스테이(New-stay)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대우건설은 오는 12월 동탄2신도시에 '행복마을 푸르지오'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대우건설의 첫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별 ▲59㎡A 400세대 ▲59㎡B 258세대 ▲72㎡ 211세대 ▲84㎡ 266세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조감도.

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8년 동안 연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최근 5년간 화성시 전세가 상승률은 연 12.5%였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부 세대를 특별 공급한다. /차기태 기자

추석 '택배대란' 다음주부터 본격 돌입

**배송물량 전년比 20%↑
하루 최대 900만 박스**

**CJ·한진·현대 택배 3사
작업인력 최대 50% 늘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택배대전'의 신호탄이 켜졌다.

올해는 민간 택배물량의 90%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택배 물량이 20% 가량 늘며 추석 배송 기간 하루 배송 물량도 지난해보다 최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택배업계는 추석 택배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이달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배송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CJ대한통운(대표 양승석)은 올해 추석 택배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는 22일 460만 상자의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CJ대한통운 직원들이 대전 문평동 허브터미널에서 택배 분류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CJ는 이에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추석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선물택배 급증에 따른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CJ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후 전국 택배 물동량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담당 부서는 콜센터 상담원, 아르바이트 등 직원을 평소보다 10~20% 늘려 운용한다. 콜벤과 퀵서비스 등 협력업체를 통해 배송 수단을 추가로 확보, 물량 급증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기존 대비 성능이 1.5배 이상 향상된 최신형 서버 3대를 추가로 증설했다.

한진택배(대표 서용원)는 추석물량이 예년보다 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하루 최대 물량은 140만 박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은 이에 이달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비상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명절 특수기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 한진은 택배 차량을 확보하고 분류 인력 충원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본사 임직원 300여 명을 택배현장에 투입해 분류작업과 집배송, 운송장 등록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루 60만 박스의 물량처리가 가능한 동남권 허브터미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현대로지스틱스(대표 이재복)도 10일부터 택배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해 21일이 되면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루 최대 물량은 300만 박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 측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약 4주간을 추석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90개 지점과 1000여 대리점에 긴급 배송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량 6000여 대와 본사 직원 7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물류센터 분류인력과 콜센터 상담원을 각각 50% 증원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로지스틱스는 스마트폰과 첨단 택배시스템을 결합해 정확한 집배송 예정시간과 실시간 화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약센터 이용고객이 증가하면서 콜센터 이용시간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허술한 선물포장으로 택배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송피해를 줄이려면 물량 집중 기간을 피해 연휴 10일 이전(9월 셋째 주)에는 택배를 발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추석명절 연휴 전 택배를 보내기 적당한 날은 11일까지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택배기사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접수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TV홈쇼핑, 보험판매로 1조7000억 수익

소비자 피해 사례는 증가

TV홈쇼핑업계가 최근 4년간 보험 판매로 1조7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TV홈쇼핑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홈쇼핑 회사들은 보험 판매 수수료로 1조732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15개 손해보험사는 9517억원, 25개 생명보험사는 7811억원의 수수료를 6개 홈쇼

핑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라이나생명이 2011년 이후 2845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어 흥국생명(1449억원), 동양생명(1350억원), 신한생명(908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에이스 화재가 19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부화재(1598억원), 삼성화재(1375억원) 등이다.

회사들이 매년 고액의 이익을 창출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는 증가했다.

2011~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품목 중 1위가 보험이었다.

송호창 의원은 "홈쇼핑 업계가 보험 판매로 이득을 얻는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부는 홈쇼핑의 보험 판매 관련 피해를 재승인시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정부방출 오징어와 갈치를 저렴하게 롯데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10일부터 일주일간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을 방출해 갈치 1마리 9900원 오징어 1마리 1200원에 판매한다. 9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관계자들이 갈치와 오징어를 들고 있다. /뉴시스 제공

롯데百, 법륜스님 초청 '환경 토크 콘서트'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15일 잠실 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에서 '법륜스님'을 초청해 '환경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토크 콘서트는 90분간의 강연과 '즉문즉설' 시간으로 구성된다. 법륜스님은 이번 강연에서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환경과 평화란 어떤 의미인지를 전할 계획이다.

강연 접수는 롯데백화점 전점 문화센터에서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선착순 660명에게 콘서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갤러리아 명품관 男 수트 맞춤제작 서비스

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는 갤러리아명품관에서 11일부터 20일까지 명품관 이스트 4층에서 남성 수트 맞춤 제작 서비스인 '드레싱 더 맨'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세계 3대 수트 브랜드 키톤에서는 맞춤 서비스를 위해 11~14일 이탈리아의 마스터 테일러가 방한해 MTM(반맞춤, 개인에 맞게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형식의 맞춤 제작) 서비스를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中 상해 로드쇼 개최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은 8일 롯데호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공동으로 중국 상해에서 기자간담회와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 관광 3사는 한국 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특전 등을 발표했다.

로드쇼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는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상하이모닝포스트 등 중국 현지 70여 개 언론사 관계자와 파워블로거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K몰, 오늘 하루만 모바일 앱 '젤리슈즈 0원'

AK플라자(대표 정일채)가 운영하는 종합온라인쇼핑몰 AK몰은 10일 하루 동안 'AK몰 모바일 앱 데이'를 열고 신규 앱 설치 이벤트, 0원 특가상품, 50% 특가상품, 무료배송데이 등 모바일 앱에서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제로존'에서는 0원 특가상품을 판매한다. 오전 10시부터 2만5000원 상당의 프리가 젤리슈즈를 0원에 1000개 한정수량 판매한다. 1인 1회 구매 가능하며 배송비만 결제하면 된다.

롯데, 취약계층 산모에 후원금 3억 전달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9일 대한적십자사와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북한이주민 등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하는 'mom편한 예비맘 프로젝트'에 후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 'mom편한 예비맘 프로젝트'는 롯데가 여성·육아 관련 사회공헌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mom편한' 브랜드를 적용한 후원 사업이다.

70돌 아모레퍼시픽 '원대한 기업'으로 도약

서경배회장 "2020년 매출 12조, 해외 비중 50% 이상"
글로벌 메가 씨티 전략으로 세계 진출 가속화 할 것

창립 70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이 2020년 '원대한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9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비전 아래 매출 12조원, 영업이익율 15%, 글로벌 사업 비중 5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안 뷰티(Asian Beauty)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미(美)의 여정을 개척하며, 원대한 기업(Great Global Brand Company)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글로벌 메가 시티(Mega City)'다. 거대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신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중남미 시장은 2016년에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 중동 시장은 2017년 진출해 아시아를 넘어 시장을 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위한 연구와 개발도 강화한다. 올해 '아시안 뷰티 연구소(ABL)'를 기술연구원 내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아시안 뷰티 연구소에서는 인삼, 콩, 녹차 등 아시안 뷰티 특화 소재에 관한 기술과 제품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소비자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해 제품화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내에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체계를 구축해 작은 규모의 민첩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창의적인 브랜드를 육성하는 기반을 다져 신규 브랜드 개발도 장려할 계획이다.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전략본부장은 "면세시장, 중국시장과 함께 글로벌 메가 시티를 주요 시장으로 삼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면서 "특히 인구 세계 30여 개의 메가시티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지난 1945년 9월에 설립된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시장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 창업자 서성환 회장은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창립했다.

1954년에는 두 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혁신에 가까웠던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연구실을 세우기도 했다.

이니스프리 중국 상해홍이광장 플래그십스토어. /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메로디크림'(1948년), 'ABC포마드'(1951년), 'ABC인삼크림'(1966년), '미로'(1989년), '아이오페 레티놀 2500'(1997년), '쿠션'(2008년) 등의 히트상품을 개발왔다.

또 1964년 국산 화장품으로는 최초로 '오스카' 브랜드를 통해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했으며 1990년대 초부터는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며 전 세계 뷰티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노력으로 지난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전세계 100대 혁신기업 중 28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 회장은 "올해 아모레퍼시픽은 70년의 뜻 깊은 역사를 갖게 됐지만 원대한 꿈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아모레퍼시픽만이 지닌 독창성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창의적으로 잘 살려낸다면, 반드시 아시안 뷰티(Asian Beauty)로 세계 뷰티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유니클로, 수도권 신규매장 3곳 오픈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유니클로(대표 홍성호)는 10일 이마트 성남점, 11일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과 AK플라자 평택점 등 신규 매장 3곳을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유니클로는 오픈을 기념해 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5만원 이상 구매자들에게 신촌 지역내 특정 상점 이용 쿠폰을 증정하는 '에어볼'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강술래, 따뜻한 사랑의 음식 나눔 캠페인

외식문화기업 전한(대표 최종만)이 운영하는 한식숯불구이전문점 강강술래가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해 한우불고기 100인분과 쇠고기육포 30봉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야외 외출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직원과 장애인 1인씩 한 조가 돼 인근 해우재 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는 도우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한국외식산업협회 윤홍근 상임회장(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9일 aT센터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식품대전'의 '식품 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윤홍근 회장은 국내 외식산업 발전 및 글로벌 외식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게 됐다.

북유럽 정통 훈연 '동원연어 핫 스모크' 출시

동원산업(대표 이명우)이 고급 연어를 북유럽 정통 방식으로 훈연한 냉장 훈제연어 '동원연어 핫 스모크-오리지널, 페퍼, 스트립 데리야끼' 3종을 9일 출시했다.

동원연어 핫 스모크는 연어를 국산 참나무로 고온 훈연해 기름기를 줄이고 12시간 저온 숙성시켜 맛과 향을 풍부하게 살린 고급 훈제 연어다.

풍성한 한가위 준비는 '하나로'에서

농협유통
추석선물·제수용상품 할인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조영조)은 양재점, 창동점 등 25개 하나로클럽·마트에서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한가위 대축제'를 진행한다.

한가위 대축제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은 선물세트 위주의 1차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우리 명절인 추석에 고객들이 품질 좋은 우리 농·특·축·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00여종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은 제수용품 위주의 2차 할인행사로 진행된다.

8대 카드(NH농협·BC·국민·신한·삼성·하나·현대·롯데)로 한가위 선물세트를 구매시 구매금액의 5%를 농촌사랑상품권으로 증정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신선농산물, 다양특산물, 안심축산물 등 다양한 한가위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과일, 식품 등 42품목을 NH농협카드로 결제시 기존 할인 금액에서 추가로 1000원에서 8000원까지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선물세트 구매시 3+1, 4+1, 5+1 등 덤 증정 아이콘이 붙어 있는 선물세트의 경우 해당 물량 구매시 동일 선물세트를 하나 더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성현 기자 minus@

성인 10명 중 9명, 일주일 1회 이상 발효유 마신다

한국야쿠르트
발효유 소비행태 조사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발효유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출시 15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한민국 발효유 소비행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효유를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라는 질문에 하루에 1회 이상(22.3%), 일주일에 4~6회(16.9%), 일주일에 2~3회(38.4%) 순으로 답했다.

소비자들이 발효유에 기대하는 효과로는 변비·소화 개선, 편안한 속 등 주로 식생활과 연계된 소화기능 개선이다. /정은미 기자

토요일도 평일처럼 진료

이대목동병원

12일부터 전 과목 교수 출근 MRI 등 모든 항목 검사 실시

이대목동병원(병원장 : 유경하·사진)이 평일에 대학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 진료와 검사, 수술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2008년부터 환자 편의를 위해 토요일 진료를 실시해온 이대목동병원은 그동안 진료과별 환자 특성에 따라 일부 교수들만이 토요일 진료와 수술에 참여해왔다.

검사도 일부 항목에 국한되었으나 오는 12일부터 전격적으로 토요일도 평일처럼 전 진료과에서 모든 교수가 진료, 수술에 참여하고, 검사도 모든 항목으로 확대한다.

토요일 진료 예약도 평일처럼 동일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전면적인 토요일 진료와 검사, 수술 실시로 환자들이 많은 평일보다 토요일에 오히려 신속하게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로부터 보다 긴 시간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환자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입원 기간이 1박2일이나 2박3일로 짧은 수술의 경우 토요일 수술을 대폭 확대한다.

평일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직무나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금요일 입원해 검사를 받고 수술한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활한 토요일 진료와 수술을 위해 각종 혈액검사, 유방·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같은 특수 검사와 MRI, CT, PET 등과 같은 영상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를 평일과 같이 실시해 재방문 필요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은 직장인과 학생을 위한 신규 특수 클리닉을 대폭 확대 개설했다.

내시경클리닉, 여드름클리닉, 보톡스필러클리닉을 비롯해 코막힘클리닉, 수술후흉터관리클리닉, 임산부클리닉, 해외여행자클리닉, 소아신경클리닉, 치매예방클리닉 등과 같은 특수 클리닉의 신설을 통해 평일에 대학병원에서 긴 시간 기다리기 힘들었던 직장인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평일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직장인과 학생과 보호자들이 이번 토요일 진료와 검사, 수술의 전면적인 확대와 토요일 특수 클리닉 진료를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평일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한 토요일 진료, 검사, 수술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안방서 쇼핑하듯 호텔 객실 분양받는다

데이즈호텔 제주시티

오늘 NS홈쇼핑 분양 방송 개별등기·연 16% 확정수익

데이즈호텔 제주시티가 10일 오후 9시45분부터 1시간 동안 NS홈쇼핑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의 소개를 통해 객실을 선착순으로 분양, 청약을 받는다.

저금리시대에 노후대비 고수익형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인 '데이즈호텔 제주시티'는 객실별로 소유할 수 있는 개별등기가 가능한 호텔이다.

분양 후 호텔 운영은 전문기업이 위탁 관리해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일일이 운영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을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특히 데이즈호텔 제주시티는 제주공항과 국제여객 터미널이 10분 거리에 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면세점과 바오젠거리도 인접해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데이즈호텔은 뉴욕증시 시가총액 1위의 세계적 호텔 체인인 윈덤그룹의 대표 브랜드다. 현재 전세계에 2000여 개, 중국에만 125개의 호텔이 운영중으로 중국인들의 선호하는 호텔 브랜드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서귀포시 I, II와 명동에 이어 제주시에 4번째로 선보인다.

제주시 지방법원 맞은편 이도2동에 들어서는 데이즈호텔 제주시티는 지하 2층~지상 10층 총 365실 규모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5.13㎡~50.91㎡의 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부대시설로 대형 연회장과 휘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등도 갖췄다. 호텔 바로 앞에는 제주 바다와 한라산이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다.

1 객실당 분양가격은 약 1억6000만원대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60% 전액 무이자 등 초기 투자 부담금을 낮췄다. 약 6000만원대 소액 투자로 누구나 세계적인 특급호텔을 내 명의로 할 수 있다.

50% 대출을 기준으로 실투자금액에 대해 최초 1년간은 연 16% 수익을 확정 지급해 주고 이후 9년간은 최소 연 11%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

더불어 호텔 운영을 통해 얻는 잉여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운영 실적에 따라 연 20%까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분양형 호텔로는 이례적으로 제1금융으로부터 PF가 조성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계약자는 성·비수기 상관없이 연간 10일간 객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또한 첫해에는 제주왕복항공권 2장을 특별 제공해 준다.

홍보관은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5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문의 (02) 555-9994. NS홈쇼핑 미리보기 www.hotelworld.co.kr

/박상길 기자

기품있는 맛으로 情 나누세요

스탠포드호텔

양고기·베이비 인삼 등 추석선물 '품격' 끝판왕

스탠포드호텔(총지배인 왕창근)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품격있는 추석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대표상품으로는 최상급 양고기만을 엄선한 양고기 세트(호주산)와 강원도 정선에서 재배한 베이비인삼을 판매한다.

간장게장하면 일품인 알이 꽉 찬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 제주산 은갈치&옥돔, 충북괴산에서 재배한 사과와 전라북도 영주시 장수 배 세트, 국내산 석청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추석 고급 와인 선물세트도 내놓는다. 와인 A세트는 반피 티아라 로쏘, 반피 티아라 플래티넘 모스카토(이태리)로 구성됐다. B세트는 그랜드 이스테이트 카버네 쇼비뇽, 그랜드 이스테이트 샤도네이(미국)로 선보였다. C세트는 몬테스 알파 샤도네이,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칠레) 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카페스탠포드 뷔페 식사권도 함께 선보인다.

호텔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엄선된 맛과 고급스러운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며 "보내는 분의 정성과 받는 분의 품격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임진각서 '통일의 꿈' 품고 달린다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내달 25일 선착순 3만명 참가

광복70년과 손기정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79주년을 기념하는 제11회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가 10월 25일 오전 10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린다.

일제강점기 때 올림픽 마라톤우승자인 손기정 선생의 아픔을 평화와 통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임진각을 출발해 민통선 일대를 순환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세부종목은 6㎞, 10㎞, 하프, 풀 코스로 전 코스 모두 민통선을 통과하며 참가자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보여줄 수 뜻 깊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노총의 노동절 마라톤대회와 통합하여 3만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마라톤 대회가 될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라톤대회 외에 평화통일콘서트, 안전과 평화기원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대회장에서 함께 개최된다.

대회 참가 신청은 3만명까지 선착순으로 손기정마라톤대회 홈페이지 (www.sonkeechungrun.com) 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치선 기자

2015 스마일 런 페스티벌, 13일 뚝섬서 스타트

대한치과의사협회

저소득층 구강암 수술비 지원

'2015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오는 13일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나성식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뚝섬 수변무대에서 열린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 째를 맞고 있는 '스마일 런 페스티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구강보건 체육문화 행사다.

한국이 세계 8위의 구강암 발생국가라는 위험성을 알리고 페스티벌 수익금을 모아 저소득층 구강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회 공헌적 축제이기도 하다.

치협 문화 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근)에 따르면 올해 '스마일 런 페스티벌' 에는 모두 3225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800 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가 예상된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특종 기자 변신

배우 **조정석**이 영화 '특종: 량첸살인기'에서 특종 기자로 변신한다. 연쇄 살인사건에 관한 일생일대의 특종이 사상초유의 실수임을 알게 된 기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일본서 신보 발표

가수 **윤하**가 9일 일본에서 신보 '뷰(VIEW)'를 발표했다. 5년 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이다. 윤하는 타이틀곡 '뷰'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오는 16일에는 뮤지컬 '신데렐라' 공연을 앞두고 있다.

가을 재즈 공연과 함께

개그맨 **이동우**가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발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우는 오는 11일 대구 평화방송 개국 19주년 기념 음악회에 출연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제8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오마이갓' 11월 방송

배우 **소지섭, 신민아** 주연의 드라마 '오 마이 갓'이 KBS2 편성을 확정했다. 극과 극의 두 남녀가 만나 다이어트에 도전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다. 오는 11월 첫 방송 예정이다.

서울드라마어워즈 MC

배우 **김정은, 이동욱**이 서울드라마어워즈 2015 MC로 발탁됐다. '서울드라마어워즈 2015'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드라마 시상식이다. 10일 오후 7시 서울 상암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우리 만의 색깔 확실히 보여줄게요

첫 정규앨범 낸 레드벨벳

레드벨벳(웬디·아이린·슬기·조이·예리)은 소녀시대, 에프엑스의 뒤를 이을 SM엔터테인먼트의 신예 걸그룹이다.
2014년 4인조로 데뷔한 레드벨벳은 '행복'과 '비 내추럴(Be Natural)'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3월에는 멤버 예리를 새로 영입해 5인조가 됐다.
'아이스크림 케이크(Ice Cream Cake)'로 KBS2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걸그룹으로 전면에 나섰다.

웬디

예리

아이린

슬기

조이

9일 발표한 '더 레드(The Red)'는 데뷔 후 1년여 만에 낸 첫 정규앨범이다. 앨범 타이틀처럼 싱그러운 느낌의 노래 10곡이 수록됐다. 지난 8일 오후 앨범 프리뷰 행사에서 만난 레드벨벳은 "앨범 타이틀에 어울리는 세련되고 색깔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수많은 아이돌이 난무하는 가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레드벨벳이 내세우는 무기는 바로 팀 이름에 있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레드'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벨벳' 두 가지 콘셉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채로운 매력이다. '더 레드'는 앨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든 강렬한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타이틀곡인 '덤 덤(Dumb Dumb)'은 영국 작곡가 팀 런던 노이즈(LDN Noise)가 참여한 업템포의 댄스곡이다. 아이린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마네킹 인형처럼 어색해지는 귀여운 소녀의 감성을 담은 노래"라고 소개했다. 앨범 발표와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인형으로 변신한 레드벨벳 멤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슬기는 "의상과 표정 등을 통해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다. 로봇 춤이 포인트"라고 소개했다.

레드벨벳 멤버들은 데뷔 후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팀 활동과 개인

SM엔터의 차세대 걸그룹
'더 레드' 앨범, 강렬함 초점
데뷔 이후 끈끈해진 팀워크
우리만의 색깔 더 알리고파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아이린과 예리는 음악방송 MC로 활약하고 있다. 조이는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서 육성재와 가상 부부로 출연하고 있다. 정신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도 남다르다. 멤버들이 꼽는 데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팀워크'다.

"활동을 하면 할수록 언니들과의 팀워크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연습할 때도 전보다 더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번 안무는 체력 소모가 큰데 언니들과 '으쌰으쌰' 하는 기분으로 준비했어요." (예리)

"데뷔 초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복을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우리들의 앨범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으로 즐기고 있어요. 팀워크도 강해져서 이제는 멤버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이 느껴져요. 점점 더 재미있어져요." (웬디)

레드벨벳에게 '더 레드'는 자신들의 색깔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들의 꿈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소화해 자신들의 이름을 더 많이 알리는 것, 나아가 차세대 걸그룹으로 인정 받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웃는 날도 기쁜 일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번 정규 앨범을 통해 '레드'라는 색깔을 확실히 알리고 싶어요. 가장 큰 목표는 레드벨벳을 지금보다 더 알리는 것입니다." (조이)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한가위는 국악과 함께"

국립국악원, 26~27일 '한가위 둥근달' 무료 개최

국립국악원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오는 26일 오후 8시와 27일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 추석 특별 공연 '한가위 둥근달'을 무료로 개최한다.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송편 맛보기, 다양한 민속놀이 등 체험 행사와 함께 마련해 추석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26일 공연은 흥겨운 전통 연희와 민요로 꾸며진다. 길놀이와 소고춤의 다채로운 리듬으로 공연의 문을 연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노래로 '추석달' '방아타령' '남도 들노래' 등을 선보인다.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 민속악단 연희부의 판굿도 관객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공연의 마지막은 출연진과 관객이 한데 어울려 강강술래 춤을 추면서 추석 명절의 흥겨움을 함께 나눈다.

27일 공연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리랑 부르기'가 열린다. 전국에 산재된 민요 아리랑 또는 기존 아리랑의 노랫말을 자유롭게 창작해 참여할 수 있다. 예선을 통과한 다섯 팀이 무대에 오르며 1등에게는 온누리상품권(50만원)을 수여한다.

'아리랑 부르기'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haesung@korea.kr)과 팩스(02-580-3045)로 접수 가능하다. 예선은 15일 오후 2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문의: 02-580-3300) /장병호 기자

OFFICIAL SELECTION
FESTIVAL DE CANNES
제 68회 칸영화제 특별상
★★★★★
삶의 여정을
우아하게 탐구하는
걸작!
- CANNES
감동적이고 섬세한,
괴물 같은 작품!
- THE PLAYLIST
절묘한 유머와
드라마의 조합!
- HOLLYWOODREPORTER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할
어느 날
나의 어머니
mia madre
〈아들의 방〉 난니 모레티 감독 작품
절찬상영중,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세이상관람가 수입·배급 (주)티캐스트 tcast cinecube

임창정

씨엔블루

방탄소년단

가을 가요시장… 언니들 가고 오빠들 온다

임창정·씨엔블루·아이콘 등 중견·아이돌·신인까지 가세

걸그룹의 컴백 대전으로 뜨거웠던 가요 시장이 가을과 함께 새 단장을 하고 있다. 가을에 어울리는 남자 가수들이 컴백을 준비 중이다. 중견 가수, 인기 아이돌 , 주목할 신인까지 가세해 가요계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가수 임재범은 3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현재 녹음 중인 새 앨범에는 국내외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범 발매에 앞서 히트곡인 '사랑보다 깊은 상처'의 리메이크를 먼저 선보인다. 10일 정오에 발표되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소녀시대 멤버 태연과의 듀엣곡이다. 다음달 30일과 31일에는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대구, 수원, 부산, 인천, 울산, 광주, 고양 등 10개 도시 전국 투어도 계획 중이다.

임창정은 9개월여 만에 가수로 돌아온다. 오는 15일 첫 번째 미니앨범 '또 다시 사랑'을 발표한다. 가을에 어울리는 발라드로 활동할 계획이다.

미니앨범 발표에 앞서 지난 7일 선공개곡 '그대라는 꿈'을 발표했다.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며 연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다. 호소력 짙은 임창정의 가창력이 빛난다.

밴드 씨엔블루는 오는 14일 정규 2집 '투게더(2gether)'로 컴백 활동에 들어간다. 약 1년 7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으로 총 11곡을 수록했다.

타이틀곡 '신데렐라'는 고전 동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곡이다. 리더 정용화의 자작곡으로 일렉트로닉 요소가 가미된 댄서블한 팝록 장르의 노래다. 다음달 24일과 25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콘서트 투어를 시작한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화양연화 pt.2'로 컴백한다. 지난해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대세 아이돌로 떠올랐다. 오는 11월에는 콘서트 '화양 연화 온 스테이지'도 개최한다.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 아이콘은 10월 데뷔를 확정했다. 데뷔에 앞서 오는 15일 선공개곡을 발표한다. 다음달 1일 '데뷔 하프 앨범(DEBUT HALF ALBUM)'을, 11월2일에는 '데뷔 풀 앨범(DEBUT FULL ALBUM)'을 발표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처가살이 나선 안방마님

◆ SBS '자기야-백년손님'

오후 11시15분

'안방마님' 김원희가 MC 6년 만에 처음으로 후포리를 찾는다. 사위들이 도맡아했던 처가살이를 몸소 체험한다. 도착하자마자 그토록 바랐던 대게 포획에 나서려고 한다. 그러나 후포리가 금어기를 맞아 대게 포획이 금지되는 바람에 좌절하고 만다. 여기에 '주부 10년차'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드는 어설픈 요리 실력으로 원성을 사면서 김원희는 '백년손님'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신혼을 보내고 있는 김새롬, 이찬오 부부가 화제가 됐던 '스몰 웨딩'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힌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4개월 밖에 안 걸렸던 결혼 비화를 공개한다.

◆ JTBC '썰전'

오후 11시

구상찬 전 상하이 총영사관 총영사가 일일 패널로 합류한다. '중국통'으로 알려진 그는 이제는 달라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개한다.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40분

김범수의 고소공포증을 극복시키기 위해 안문숙은 함께 산악 체험장으로 간다. 높은 곳을 질색하는 남편의 약한 모습에 안문숙은 장애물을 먼저 통과하는 시범을 보이며 독려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일(목)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Story on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특별생방송 희망창조 코리아 웃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애인 있어요 (재) 11: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06: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유자식상팔자 (재) 10:2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50 비정상회담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나는 자연인이다 (재) 11: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05:40 집밥 백선생 오늘 뭐 먹쥬? (재) 06:00 현장토크쇼 TAXI (재) 06:50 오 나의 귀신님 (재) 08:0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내친구와 식사를 합시다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6:20 꽃보다 할배-그리스 (재) 07:50 고성국의 빨간 의자 08:50 집밥 백선생 (재) 11:20 두번째 스무살 (재)
12:00 KBS 뉴스 12 13:00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이웃집 찰스 (재) 14:55 세계인 스페셜 (재) 15:00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16:00 오늘의 경제 16:10 코리아 생명의 희망을 심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특선다큐<세계대전>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500회 특집 위기탈출 올스타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앙코르 2015 DMC 페스티벌 드라마뮤직 콘서트 14:00 리얼스토리 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2015 한국오픈 1R 천안위성생중계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연쇄쇼핑가족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5: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6:2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7:40 코미디 빅리그 (재)	12:40 두번째 스무살 (재) 14:00 수요미식회 (재) 15: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6: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2015 KBS대기획 넥스트 휴먼 23:00 KBS 뉴스라인 23:40 하늘 길을 잡아라, 공항 전쟁 24: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비타민 22:00 어셈블리 23:10 해피 투게더 24: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밤을 걷는 선비 23:15 2015 DMC 페스티벌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5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SBS 8 뉴스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용팔이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연쇄쇼핑가족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3:00 썰전 24:20 비정상회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알토란 (재) 21:50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19:20 수요미식회 (재) 20:40 젠틀맨리그 21:40 어쩌다 어른 (재) 23:00 슈퍼스타K7 24:40 집밥 백선생 (재)	18:30 집밥 백선생 (재) 20:00 어쩌다 어른 21:1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21:40 수요미식회 23:00 어쩌다 어른 (재) 24:20 오 나의 귀신님 (재)

권창훈, '슈틸리케호' 차세대 에이스 등극

레바논전서 기성용과 '만점' 궁합

K리그 수원 삼성의 '젊은 날개' 권창훈이 슈틸리케호 에이스로 등극, 기성용과 완벽한 조화를 입증했다.

권창훈은 지난 9일(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3차전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15분 한국의 승리를 사실상 확정 짓는 골을 터뜨렸다. 3-0 완승을 거두는 데 일조했다.

지난 8월 2015 동아시안컵에서 국가대표로 데뷔한 권창훈은 지난 3일 라오스전에서 2골을 넣는 맹활약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경기에서도 만점 활약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나타냈다. 최근 두 경기만 놓고 보면 슈틸리케호의 에이스인 기성용, 손흥민(레버쿠젠)에 뒤지지 않는 활약이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도 권창훈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 권창훈은 대표팀에 합류한 뒤 이날까지 5경기 가운데 4경기를 선발로 소화했다.

권창훈은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다. 패스보다는 과감한 드리블로 공격의 활로를 뚫는 것이 특징이다. K리그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선수다. 슈팅도 점차 물이 오르고 있다. 올시즌 수원의 주전으로 발돋움하며 7골을 책임졌다.

8일 밤(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레바논의 경기. 한국 권창훈이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훈(오른쪽)이 골을 넣은 뒤 기성용(중앙), 정우영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감독은 라오스전과 레바논전에서 권창훈을 기성용의 파트너로 기용했다. 기성용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의 3골 중 2골에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다. 그 중 하나가 권창훈과의 호흡이었다. 권창훈은 기성용(스완지시티)의 전진 패스를 페널티아크 안에서 받은 뒤 수비수 3명을 앞에 두고 과감한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A매치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주로 2선에서 공격진을 받쳐주고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기성용이 있기에 권창훈은 중앙에서 좀더 마음껏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 밀집수비를 깨야 하는 2차 예선에서 두 선수의 중원 기용은 다양한 공격 전개를 가능하게 했다. 다른 유형의 두 선수가 서로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며 대표팀의 연승 행진을 쌍끌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 축구 대표팀은 다음달 8일 오후 11시55분 쿠웨이트와 원정 4차전에 나선다.

/하희철기자 hhc@metroseoul.co.kr

손연재, 세계선수권 입상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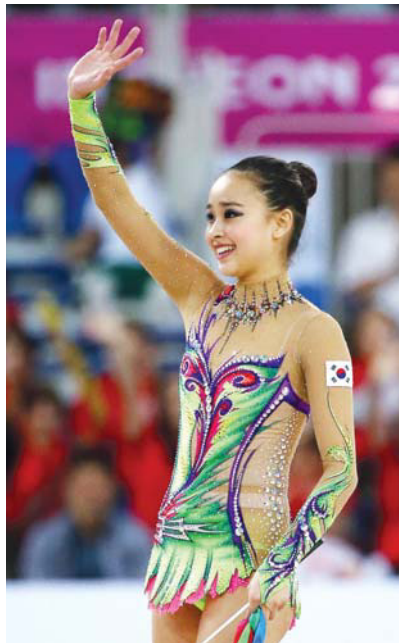
종목별 결선 후프 5위·볼 4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사진)가 세계선수권대회 후프와 볼 종목 결선에서 입상에 실패했다.

손연재는 9일(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포르셰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2015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둘째 날 종목별 결선 후프에서 18.125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어진 볼에서는 18.216점으로 4위에 올랐다.

후프에서는 마르가리타 마문(18.950점·러시아), 알렉산드라 솔다토바(18.650점·러시아), 간나 리자트디노바(18.583점·우크라이나)가 차례로 금, 은, 동메달을 가져갔다. 볼에서는 야나 쿠드랍체바(19.025점·러시아), 마문(19.000점), 스타뉴타(18.350점·벨라루스)가 차례로 금, 은, 동메달을 얻었다.

손연재는 현재 개인종합 예선에서 후프(17.933점)와 볼(18.266점)을 합한 중간합계 36.199점으로 리자트디노바(36.332점), 마문(36.233점)에 이어 중간 순위 3위를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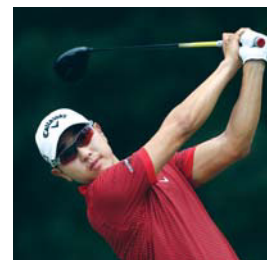
개인종합 결선에 오를 24명의 진출자는 남은 곤봉과 리본 등 나머지 두 종목을 합한 4종목 점수 가운데 상위 3종목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들 중 상위 15위 안에 이름을 올려야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티켓을 얻을 수 있다. /하희철 기자

배상문, 프레지던츠컵 깜짝발탁

인터내셔널팀 추천 선수 대회 마친 뒤 입대할 듯

배상문(29·사진)이 오는 10월 8일 인천에서 열리는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한다.

9일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의 단장 닉 프라이스(짐바브웨)는 대회에 출전할 단장 추천 선수로 배상문, 스티븐 보디치(호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과 맞붙을 인터내셔널팀 소속 출전 선수로 배상문, 대니 리(25) 등 12명의 선수가 모두 정해졌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배상문은 세계랭킹 92위, 페덱스컵 랭킹 23위에 올라 있다. 인터내셔널팀 내 랭킹은 20위다. 올 시즌에는 작년 10월 열린 2014-2015시즌 PGA 투어 개막전인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근에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인 바클레이스에서 공동 6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배상문은 최근 입대를 연기하려다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올 시즌 투어 활동을 마치고 군복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프레지던츠컵을 마친 뒤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희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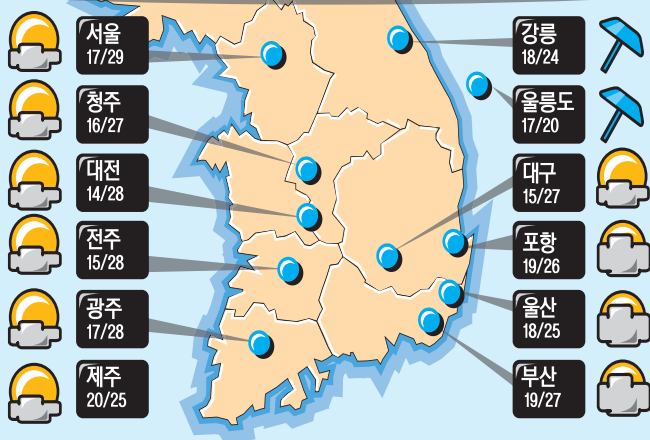
강정호·추신수, 첫 동반 홈런… 시즌 14호·17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 왼쪽)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오른쪽)가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한국 선수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같은 날 홈런을 때린 것은 처음이다.

강정호는 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8회 네 번째 타석에서 좌월 솔로 홈런으로 팀의 7-3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강정호는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2일 밀워키전 이후 7일 만에 시즌 14번째 홈런과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6에서 0.288로 올랐다.

추신수도 홈런포로 화답했다. 같은날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텍사스가 1-0으로 앞선 3회 1사 1, 2루에서 우월 쓰리런 홈런포를 터트렸다. 시즌 17호 홈런이자 지난달 29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 경기에서 쳐낸 솔로 홈런 이후 10경기 만에 홈런이다. 시즌 타율은 0.254를 유지했다. 5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부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3타수 1안타 2볼넷(3타점 1득점)을 기록해 2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부터 7경기 연속 멀티 출루도 이어갔다.

텍사스는 시애틀의 추격을 9-6으로 뿌리치고 2연승했다. /하희철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5			2			1
		6				7		
7	1		5			4	8	
		8	4		6			3
			2		3			
6			8		7	5		
	6	7			8		5	4
		1				8		
3			9			1		6

6			9	7	1			8
	2				5	4		6
		8			4			
	5			6			3	9
		6				2		
8	3			4			5	
			8			7		
7		3	5				4	
2			4	9	7			3

스도쿠 정답

8	9	5	7	4	2	3	6	1
4	2	6	3	8	1	7	9	5
7	1	3	5	6	9	4	8	2
5	7	8	4	9	6	2	1	3
1	4	9	2	5	3	6	7	8
6	3	2	8	1	7	5	4	9
2	6	7	1	3	8	9	5	4
9	5	1	6	2	4	8	3	7
3	8	4	9	7	5	1	2	6

6	4	5	9	7	1	3	2	8
1	2	9	3	8	5	4	7	6
3	7	8	6	2	4	9	1	5
4	5	7	2	6	8	1	3	9
9	1	6	7	5	3	2	8	4
8	3	2	1	4	9	6	5	7
5	6	4	8	3	2	7	9	1
7	9	3	5	1	6	8	4	2
2	8	1	4	9	7	5	6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YOLO (You Only Live Once)

A: My colleague just got back to me about that internship we were talking about.
B: Sweet! What did he say?
A: They are still looking for someone, but unfortunately it's unpaid.
B: Oh… that's cool I guess.
A: They at least pay for lunch and transportation costs. You should do it just to get your foot in the door.
B: Do they usually hire their interns?
A: Only about 50%. But there are also lots of networking opportunities.
B: Hmm… okay! Why not? **YOLO**, right? lol
A: Huh? What is **YOLO**?
B: You don't know **YOLO**? hahahaha It means you only live once!
A: Ahhh yeah I think I've heard that before.
B: I bet you don't know what cray is either.
A: No idea. All I know is that you'd better not talk like that in the interview. lol

인생 두 번 사나

A: 전에 너랑 얘기했던 인턴십에 관해서 동료가 방금 답신해줬어.
B: 잘됐네! 뭐래?
A: 아직 사람을 구하고 있긴 한데, 무급이래.
B: 아… 괜찮을 거 같은데.
A: 적어도 점심이랑 교통비는 준대. 그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려면 해야지.
B: 보통 인턴을 고용한대?
A: 50% 정도만. 근데 인맥을 쌓을 기회도 많대.
B: 흠… 좋아! 안될 거 있나? YOLO, 그치? ㅋㅋㅋ
A: 엉? YOLO가 뭔데?
B: 몰라? 하하하하. **"인생 두 번 사냐"**란 말야!
A: 아~ 응. 들어본 거 같다.
B: 넌 분명히 cray도 모르겠구나
A: 몰라. 분명한 건 너 면접 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단 것뿐 ㅋㅋㅋ

* cray: crazy의 채팅 속어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수능 100일 기도 중인데 몸이 아파 고민입니다
절하지 않는 게 마음에 걸리면 지장기도 드리세요

관세음 남자 95년 4월 10일 20시경

Q 올해 수능시험 일자가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를 아들을 둔 어머니 입니다. 그동안 100일 치성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다리 관절이 아파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계속 하자니 몸이 따르지를 않고, 도중에 그만두자니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아들이 작년에 실패를 해서 올해 1년 재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목표가 이뤄져야 하는 부담감이 매일 가슴을 짓누릅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전국에 유명하고 영험이 있다는 부처님과 여러 사찰을 찾아가서 공양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어찌 해야 하나요?

A 기도를 올리는 것에 대한 효험을 본 사례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 때가 되면 어머니들의 고생이 많게 되는데 전국을 돌아다닌 것뿐만 아니라 108배 1000배 절을 할 때마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무릎 관절은 90도 이상 구부리면 크건 작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거의 실리지 않는 자전거 타기에서도 안장 높이를 조절해서 무릎이 최대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게 하며 스트레칭을 할 때도 가급적 무릎을 굽히지 않게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드님은 신금(辛金)일간이 진월(辰月)에 태어났는데 포태법상 시험 운이 그다지 나쁘지 않으니 안심이 되지만 100일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둘 수는 없으니 절을 할 때 앉았다 일어섰다 하지는 마시고 그냥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도도 정성이 있어야 하고 격식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정성을 더 들여야 하는 것이니 절에 가서 지장기도를 드리도록 하세요.

지장보살님께 정성껏 기도를 하는 공덕은 뜻밖으로 매우 큽니다. 현실 속에 찾아든 고난을 단순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는 일에서부터 죽음 후의 내생에 이르기까지 지장보살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장보살본원경'은 다른 경전과는 달리 태어나고 살아가고 일하고 수행하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여러 과정과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일일이 밝히고 있습니다. 귀하가 일일이 하시기 어려움이 있으니 교통이 편한 사찰에서 지장기도를 올려보세요. 지장보살께 삼배를 올린 다음 지장왕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면 틀림없이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0일 (음 7월 2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주색을 조심할 때 입니다. **60년생** 조금 잘 풀린다고 방탕하면 안됩니다. **72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습니다. **84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룹니다.

52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64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세요. **76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안됩니다. **88년생** 결실이 배가 될 것입니다.

56년생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68년생** 당당하게 나가니 주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80년생**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92년생** 소송은 불길합니다.

49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61년생** 내 자신을 추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73년생** 자식들이 좋은 소식을 알려옵니다. **85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있습니다.

53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65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7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89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57년생 주변인과 타협하세요. **69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81년생** 파트너와 불화가 있겠습니다. **93년생** 신중히 결정하세요.

50년생 중개인이 필요할 때 입니다. **62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74년생** 무리에서 인기가 많은 하루입니다. **86년생** 가슴 벅찬 기쁨을 얻게 됩니다.

54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6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78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90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습니다.

58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70년생** 서쪽이 길방입니다. **82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년생** 산야에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습니다.

51년생 귀인이 앞을 다투어 도와줍니다. **63년생** 뜻밖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75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87년생** 상대도 나만큼 알고 있습니다.

55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67년생** 재는 크고 이름 고 관은 성공합니다. **79년생**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91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심이 좋습니다.

59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하세요. **71년생**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83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95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자동차 해킹 사고, 현실이 되고 있다

김필수의 차 이야기

최근 자동차 해킹 사례가 미국에서 계속 소개되고 있다. 자동차 해킹은 기존의 기계적 기반에 전기전자적 부품이 획기적으로 가미되면서 부각된 문제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자동차 해킹에 대한 실험이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의 자동차는 1970년대 후반까지 기계적 장치가 주류로 약 1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졌다. 그 이후 전기전자, 반도체 부품이 급증하며 현재는 약 3만개에 달한다. 전기전자부품 가미를 통해 고연비와 친환경,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기능, 능동식 안전 기능, 고연비, 친환경이 기본 요소로 떠오르면서 전기전자, 반도체 부품은 기본이 됐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융합적으로 자동차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 제어기술과 인터넷 등 무선 통신수단이 가미되면서, 외부에서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다. 외부에서 무선 통신만 되면 통제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80년대 초반 기계식 자동차에 전기전자부품이 본격 개입되면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도 부각됐다. 점점 심각성을 더해 자동차 급발진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 자동차가 전자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제는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자동차 내에 컴퓨터 기능이 더해지면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해킹이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심각한 후유증이다.

운전 중 제어 기능 상실은 바로 사고를 지칭한다. 탑승자의 사망이나 다중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살인도 가능하다. 증거도 남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자동차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3자에 의한 보이지 않는 '보복운전'의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자율 주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자동차 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적 기준도 고민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어두운 부분으로 등장한 것이 자동차 해킹이다. 어느 쪽을 제대로 활용할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자동차 해킹은 증가할 것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구글이나 애플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자동차를 통한 수익모델에 몰두하고 있다.

자동차가 융합의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해킹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당장 내 문제로 닥칠 수 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법적 제도적 시스템과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어기술의 조화가 중요하다.

무작정 개발했다고 바로 자동차에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안전 등 검증을 통한 철저한 절차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제대로 된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다.

社 說

홈플러스와 외환은행의 경우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외국기업의 품에서 빠져나와 되돌아오게 됐다. 영국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국내 토종사모펀드 1호인 MBK파트너스에 넘기기로 계약했으니, 16년만에 돌아온 것이다.

매각가격인 7조2000억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가타부타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번 계약에 대해 "테스코의 과도한 매각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먹튀' 매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이번 계약이 먹튀자본과 투기자본이 결합한 기업매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외국기업에 넘어갔던 국내 유력기업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외환은행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2003년 론스타에 넘어갔던 외환은행을 국내 대형금융회사인 하나금융이 2012년 인수한 것이다. 이번에는 인수주체가 그런 대형 금융사도 아니고 재벌기업도 아니다. 토종사모펀드가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인수합병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셈이다. 이는 앞으로 실력있는 금융전문가나 경영자가 국내 여유자금을 모아 토종사모펀드를 만들면 부실기업을 정리하거나 외국에 넘어간 국내기업을 되찾아오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홈플러스 외에도 외국기업에 넘어간 국내 대형기업들이 적지 않다. 또 우리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관리를 받는 대우증권과 대우조선 등 많은 대형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을 여러 차례 시도해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급기야 정부는 이제 중동의 국부펀드에게도 손짓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 기업을 매각할 때 이번처럼 토종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사모펀드를 제대로 경영할 전문가가 다수 나와야 한다. 정부도 앞으로 실력있는 금융전문가와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프라다·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 가죽 A/S '꽝'

소비자 119

고가 명품브랜드 제품의 소재는 가죽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작 가죽은 고객서비스(A/S)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관계자들은 가죽 자체가 고가이고 브랜드 정책상 환불이나 교환은 물론 A/S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고객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프라다와 구찌, 루이뷔통, 샤넬, 펜디, 에르메스 등 6개 인기 브랜드의 A/S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제각각이었다.

프라다의 경우 A/S기간은 구매일로부터 2년이었으며 가죽에 대한 A/S는 일절 불가했다. 지퍼나 로고 등의 수선과 부속품 교환만 가능했다.

에르메스 역시 가죽은 A/S가 불가하고 가죽 정리나 광택 등 크린징 작업만 가능했다. 구매일로부터 1년까지 A/S가 가능했으며 유상으로 액세서리나 로고 등 교체가 가능했다.

루이뷔통과 샤넬의 경우 정해진 A/S기간은 없었으며 가죽 제품도 상태에 따라 유상으로 A/S가 가능했다. 또 부속품도 유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만 한정 제품의 경우 부속품이 없을 수 있다.

구찌 역시 구매일로부터 1년까지 A/S가 가능했지만 가죽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랐다. 로고나 지퍼 등 부속품은 A/S 기간내에는 무상으로, 기간 외에는 유상이었다.

펜디의 A/S기간은 구매일로부터 2년이었으며 가죽은 AS가 불가했다. 부속품은 A/S 기간 내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했으며 기간 외에는 유상으로 교체가 가능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생활 법률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최근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연락이 잘 안되자 지인이 돈을 편취해 행방불명됐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지인은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했다. 이에 A씨는 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대항할 방법은 없을까.

검찰이 고소·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났을 경우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에 항고를 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바로잡음)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항고의 이유가 없다는 기각 결정이 나면 A씨는 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이를 받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법원으로 넘어간 심리는 통상 공개하지 않으며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사

◇강원도 ▷기획조정실 기획관실(강원발전연구원 파견) 이만희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한원석 ▷원주시 부시장 백종수 ▷고성군 부군수 지승태 ▷총무행정관실 박천수 ▷기획조정실 회계과장 엄명삼 ▷"균형발전과장 직무대리 정일섭 ▷글로벌투자통상국 기업지원과장 최병국 ▷인재개발원 교육연구실장 직무대리 정한용 ▷서울본부장 권종호 ▷농정국 농업기반과장 직무대리 임찬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홍기
◇고려대 ▷총무처장 이기성
◇경복대 ▷교학처장 김영진
◇창원대 ▷대학원장 정재욱
◇충북보건과학대 ▷부총장 김덕환 ▷교학처장 강석규 ▷기획행정처장 정회승 ▷산학협력처 겸 산학협력단장 박남석 ▷평생교육원장 송형래 ▷홍보실장 이윤수 ▷교학실장 안찬기 ▷입학실장 강안구 ▷행정실장 김우호 ▷산학협력실장 김학진 ▷창업보육센터장 정주호

부고

▲김석종씨 별세, 유재명(OBS 경기총국 취재부장)씨 장인상, 김태욱(삼천리도시가스 안산소장)씨 부친상=8일 오후 10시 41분, 충북 진천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9시(043-532-4405)
▲송민호씨 별세, 이영재(동양미래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박천서(사업)·명규남(사업)·이정관(성림제관 부사장)·김학균(전 스포츠서울 사장·전 서울신문 이사)씨 장모상=7일 오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02-3410-6914)
▲조순희씨 별세, 이일형(가톨릭대 교수)·복희(대구가톨릭대 교수)·혜정씨 모친상, 이숙경씨 시모상, 홍양호(전 통일부 차관)·박승택(Ecolab NALCO 아시아 비즈니스리더)씨 장모상=9일 오전 7시 25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11일 오전 5시, 장지 대구시 동구 선영(053-200-6145)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신토불이 한가위

한우불고기 세트, 콤보 및 빅불 세트 구매 시 즉석 경품권 증정

[1등 **장수 진심 명품 한우_50명**]

[2등 **친환경 울릉도 더덕세트_100명**]

[3등 **풍기 인삼 혼합세트_200명**]

[4등 **경북 의성 사과세트_300명**]

[5등 **철원오대미 5kg_1350명**]

[6등 **리치버거 1+1_5만명** / 7등 **치즈스틱 1+1_5만명** / 8등 **콜라 500원**]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휴카드 및 L.POINT카드 할인 제외 / 홈서비스 및 타 행사 중복 제외 / 일부점포 제외 / 즉석 경품권은 조기소진될 수 있습니다. / 경품 콜라는 리필 불가